

물질이 풍성하여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다가오는 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2월 4일 (토) 제 1852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코비드 펜데믹, 그냥 발생한 재앙이다!

CT, 퓨리서치 미 성인 6,485명 대상 '악의 문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도

"악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 또는 신이 관여하다고 바라보는 믿음, 에피쿠로스, 어거스틴, 흄에 비해 대부분의 미국인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신앙인과 사상가들은 전지전능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씨름했다. 퓨리서치센터는 2021년 9월 펜데믹 대유행으로 520만 명의 사

망자가 보고된 가운데 1,421명의 복음주의자를 포함한 6,485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나쁜 일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Few Americans Blame God or Say Faith Has Been Shaken Amid Pandemic, Other Tragedies: Most U.S. adults say bad things just happen, and that people are often the re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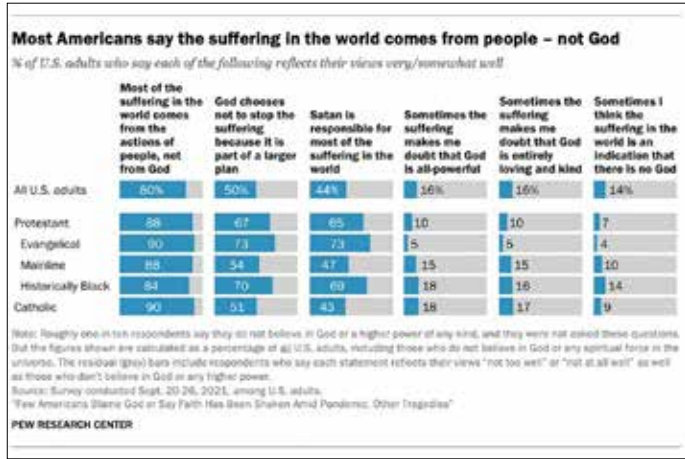
퓨 연구원들은 "미국인들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 사람들의 행동과 구조화된 사회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무작위적인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의 신자들만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미국인들은 악이 허용되는 목적을 고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대다수의 미국 성인은 고통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작위적인 우연에 기인한다고 말하면서 "가끔 나쁜 일이 그냥 일어난다"라는 문구가 자신의 견해를 매우 잘(44%) 또는 다소 잘(42%)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고통이 헛되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꽤 일반적이다.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61%)은 고통이 "사람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또는 영적 신념에 대한 별도의 일련 질문에서 미국인의 3분의 2(68%)가 "인생의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설문 조사의 주요 결과



미국 성인 10명 중 7명은 고통이 "대부분 사람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또한 10명 중 7명은 고통이 "대부분 사회가 구조화된 방식의 결과"라는 데 동의한다. △10명 중 8명은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58%) 또는 "더 높은 능력이나 영적인 힘"(32%)을 믿는 신자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에서 온다."

△10명 중 7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더 높은 능력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10명 중 5명은 고통이 "더 큰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신다고 믿는다. △10명 중 4명은 세상의 고

통의 대부분이 사탄에게 있다고 믿는다. △10명 중 2명 미만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전지하심, 선, 존재를 의심했다고 말한다. 반면에 복음주의 교회와 역사적 흑인 개신교 교회의 신도들은 하나님이 고통에 대한 더 큰 계획(73% 대 70%)과 고통에 대한 사탄의 책임(73% 대 69%)에 대한 견해에서 거의 평등한 반면, 흑인 개신교인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향이 배 정도 많았다.

복음주의자들이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의심(18% vs. 5%), 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14%)이라고 말했다. 주류 개신교와 가톨릭의 견해는 흑인 개신교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반응과

관련해 퓨리서치는 다음을 발견했다:

△미국 성인 10명 중 2명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낸다.

△10명 중 2명은 고통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믿는다. △10명 중 1명은 "나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악의 문제는 "기독교 철학자로서 직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알빈 플렌티가(Alvin Plantinga)는 철학 연구에 유신론을 다시 도입한 영향력 있는 작업으로 2017년 템플톤 상을 수상한 후 크리스치니티티데이에 말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많은 악을 세상에 내버려 두셨는지 몇 년을 생각해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팻캐스트 인터뷰에서 기독교 철학자는 말했다.

"저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안한 많은 제안, 사람들이 시도한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은 퍼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그리스도가 답이다

리더십저널, Reflection Ministries 대표 케네스 보이의 '영적 지도' 통한 '위드 하나님' 소개

점점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옳은 시대가 되어간다.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선악의 구별이 흐릿해졌고 그 사이를 틈타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둔갑해버린 시대가 됐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단지 그것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삶은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매일 부여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것이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공동체의 영혼 돌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혼 돌봄'은 목회 본질로서 기독교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필수 사역이다. 목회자는 '영혼 돌봄'의 측면에서 그 밖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영혼 돌봄'의 형태는 전통적인 돌봄 형태인 '훈련(discipline), 위로(comfort), 교화(edification)' 등과 다르다. 오히려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directing)'로 변화됐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목회자들은 '영적 지도'라는 측면에서 '영혼 돌봄'에 대해 새삼스러운 고민을 해야 한다(Life in the Presence of God).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잊힌 고대로부터 내려온 영혼 돌봄의 예술이다. 영적 지도는 보통 네 가지 영혼 돌봄 사역의 수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푸른초장 주원영 목사 4면



인터뷰 황인영 목사 15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번서적/백스펠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ighthouse.org / chp@lighthouse.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이영섭 목사 회고록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출판 기념 감사예배

나의 일생을 돌아보며 그동안 베풀어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회고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역 50년을 무사히 마친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회고록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영섭 목사 회고록 출판 기념 감사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1년 12월12일(주일) 오후4시
장소: 볼티모어 교회 (김현국 목사 시무)
1600W. Seminary Ave
Luthervill MD 2193
(410)258-3455 (410)337-9448

볼티모어 교회 원로목사 이영섭 드림

* 예배후에 만찬이 있으며 참석하신 분에게 회고록을 선물로 드립니다.

발행인 칼럼

12월에 사랑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사랑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무엇이 라고 대답하시려는가. 일찍이 그 대답을 덧붙여지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까요?" 그렇다. 사랑이 심어진 곳엔 언젠가 눈물이 흐른다. 좋아서 울든, 괴로워 울든. 사랑은 어루만짐이라고 말할 시인이 있다. '사람과 사랑'은 서로 닮은 글자인데 사람이란 단어에 있는 'ㅁ'을 어루만지면 사랑이란 글자에 있는 둥근 'ㅇ'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어루만짐이라는 것이다. 팔리컨이란 새는 사랑은 희생임을 보여준다. 배고픈 자식을 위해 먼 길도 떠나지만 먹이를 찾지 못하면 자기의 가슴을 뜯어 먹이고 병에 걸린 자식에게는 자기의 피를 터뜨려 그 피를 넣어주며 죽어간다고 한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이도 있다. 그리고 보니 사랑은 온갖 오류, 근심, 슬픔, 고독 등을 고친다.

12월이다. 모든 계절에 온갖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듯이 12월에도 사랑 이야기가 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이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사랑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복음은 사랑 이야기이고 사랑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다. 미우라 야아꼬의 소설 '양치는 언덕'이 있다. 목사의 딸 나오미와 친구의 오빠 료오이씨의 사랑 이야기가 아프게 이어진다. 못된 료오이씨는 천벌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는 용서받은 자로 죽는다. 그리고 그 소설에서 미우라 야아꼬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랑이란 용서다." 잘못된 길로 갔던 양을 다시 찾아내는 소설 '양치는 언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로 풀어낸 작품이다. 사실 이 세상에 용서가 필요 없는 자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나 용서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울에게 계절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줄행랑을 놓았듯이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그와 함께 한 자는 아무도 없었고 적극적으로 다 그를 버렸다고 한다. 바울을 자기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들을 용서했다. 바울이 그의 인생 12월에 보여준 사랑은 용서였다.

12월이다. 겨울이다. 점점 추워진다. 만일 이 시간이 내 인생에 마지막 시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아쉬움이 클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아쉬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단 하나의 일만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려는가. 그 선택은 자유겠으나 결코 용서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실, 용서의 가장 큰 수혜(受惠)자는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다. 용서하는 그 사람이다. 누군가를 제대로 용서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용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자, 12월이다. 이제 그 시간이다. 용서할 시간 말이다. 그렇다. 성탄의 계절 12월의 사랑은 분명하다. 12월의 사랑은 용서다.

가상실제(Virtual Reality), 미래 온라인 대세로 바뀐다

Antiochreport.com, "페이스북의 '메타공간' 전환,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도

모회사인 페이스북은 회사의 미래 경영 및 가상 실재로의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에 부합하기 위해 최근 리브랜딩에서 회사의 이름을 "Meta"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Instagram) 및 기타 우산 회사의 하위 집합체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름을 유지한다.

PC 시대는 컴퓨터가 거대한 방의 크기에서 "개인용 컴퓨터"(지뢰 찾기 게임 아시는 분?)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된 때였다. PC 시대(1980 - 1990) Windows, 이메일, 초기 파일 시스템, 플리피티 플로피 디스크

웹 1(1990 - 2000) World Wide Web(www.), HTML, 파일 서버

웹 2(2000 - 2007) 소셜 네트워킹(Facebook), 검색 엔진(Google), 모두를 위한 웹사이트, 모바일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

웹 3(현재): 지능형 가상 에이전트(AI), 분산 데이터 아키텍처 및 블록체인(Bitcoin), 메타버스 3D 공간(Oculus, HTC)

탈중앙화 화폐(가상화폐)

인터넷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회가 이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5년 안에 20년은 더 뒤쳐질 위험이 있다. 다음은 Facebook(Meta)이 Meta space로 전환한 이유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Facebook → Meta, & What it Means for Churches).

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방장 활용해야 한다. 교회들이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용해 보면, 또 전달력이 높은 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쉽게 지역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만큼 더 뒤쳐지게 될

것에 대한 말이다(즉, 한 가지 방식에만 몰두하지 말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라).

기독교 인플루언서들과 소통하기 위한 'Twitter(트위터)', 인기 있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TikTok(틱톡)',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Youtube(유튜브)' 및 'FB(페이스북)', 참여를 유발하는 지역화된 스토리를 위한 'Instagram(인스타그램)'과 같은 공간에 빠져들어 보라(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투표'나 'QnA'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며 모두 나름대로 유용하다. 교회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효과

00% 대면 교회서비스, 100% 가상서비스 제공 말고 병행 기술을 배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젊은 담당자를 세우라

와 가상공간이 인터넷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Meta의 메타버스(예: 5배 빠름)와 같은 메타 공간은 Big Tech Innovation을 위한 구조적 디딤돌인 만큼 매우 혁명적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교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 가상전도에 대해 알아 보기 시작하라

코로나19 동안 교회가 가상공간(예: Zoom교회)을 사용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상현실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교회가 이러한 기회에 대해 고집적인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기 시작할수록 이러한 '미래의 전도'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커뮤니티 그룹에 담당자를 배치한다(이상적으로는 25세 정도).

인터넷이 새롭고 실현되지 않은 공간으로 빠르게 바뀌어감에 따라 'TikTok(틱톡)'

적인 전도 전략에 초점을 맞추라.

'페이스북'에서 보여준 이러한 브랜드 전환으로 인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다른 기술 리더들로부터 유사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먼저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젊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15-25세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술적으로 배워 나가고 있는 것을 교회도 배워야 한다.

3. 당신의 포트폴리오처럼 사역을 다각화하라.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것은 아마도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는 100% 대면 교회 서비스와 100% 가상 서비스를 제공하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in Flushing, NY.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in New York, NY.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office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regarding a 'Pastor Exam and Certificate'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exam, including details on subjects, application methods, and dates.

위드 코로나 시대...

(1면에서 계속)

유능한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겸손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한 민감함을 포함한 지식과 분별과 인격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야만 만날 수 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
△능수능란하게 경청한다.
△성장의 장애물을 드러낸다.
△고백과 회개를 돕는다.
△어떻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지,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실행하는지 보여준다.
△필요할 때 책망하고 격려한다.
△함께 있어 주고, 동정심을 보인다.

영적 지도란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향을 감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적 지도는 우리가 의도적인 방식으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멈추지 말고 달려가도록 채찍질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적 지도는 우리를 진정

과 강점 모두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길을 찾는 동안 약점을 극복하도록 훈련하라고 격려해준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궁극적인 지혜와 지도의 원천으로 항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제시한다. 그들은 조연과 지도, 격려와 후원을 제공할 때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

영적 지도는 기도와 분별, 영적 진리의 구체적 실천 촉진 지도자는 시각 교정, 강약점 발견, 은사사용 훈련격려

으로 돌본다. 우리가 스스로 너무 밀착돼 있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을 때 지도자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줄 수 있다. 영적 지도자는 우리의 약점

고 있는 것처럼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궁극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는 태도로 한다.

라크마 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단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잇 음악회...온/오프로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의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음악회가 오는 12월 12일(주일) 오후 6시 LA 한길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올해로 8번째 갖게 되는 이번 음악회는 아프리카어메리칸 커뮤니티와 코리아어메리칸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두 커뮤니티가 음악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취지로 준비하게 된다.

이에 게스트로 협연하는 BYTHAX 앙상블은 아프리카어메리칸 커뮤니티의 가장 대표되는 연주 단체로 지휘자인 Dr. Diane White-Clayton은 현재 UCLA에서 중독음악을 가르치며 가스펠 피아노를 지휘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음악가 중의 한 명이다.

라크마는 "We are people helping people through music"이라는 사명 아래 2012년 창단돼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음악회의 수익금으로 후원하고 있는 음악 전문가들의 단체다. 음악을 통해 다민족을 품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그 동안 연주회를 펼쳐왔으며 특히 지난 2019년 8월에는 디즈니 홀에서 Jewish American 음악인들과 "한국의 혼"을 협연해 수준 높은 한국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라크마가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Los Angeles Arts Commission으로부터 공식후원을 받는 단체로 선정이 된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번 연주회 프로그램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전반부에는 올해 라크마 장학생으로 선정된 연주자들의 협연이다.

그동안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한인, 아

프리카어메리칸, 그리고 캐나다인 출신 중에서 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게 됐다. 올해는 1등이 2명인데 강데이빗은 비올라 전공으로 Cal. St Long Beach를 졸업하고 현재 USC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이번에 막스 부르크의 폴니드라이(Kol Nidrei Op. 47 by Max Bruch)를 협연한다.

또 한명의 1등은 Leonhard Hays로 피아노 전공으로 이스탄에서 석사를 USC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Afro American 중 뛰어난 피아니

스마스 멜로디와 가스펠 송 등으로 아프리카 특유의 흥겨움과 소울 사운드를 뽐낼 것이며, 이어 라크마를 통해 한국의 혼이 담겨 있는 우효원 작곡가의 "오 코리아"를 오케스트라와 전통 타악기인 모듬북이 어우러져 웅장함을 더해 한민족의 깊은 숨결을 맛볼 표현하게 될 것이다. 피날레로 음악회의 최종 두 그룹이 함께 소리를 합해 "여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음악 색깔과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소울(Soul)"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인 "한(Spiritual Sound)"의 소리와 융합해 이 둘의 소리를 통한 환희(Rejoice)를 표현하며 우정의 하모니를 이루어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

12월 12일 오후 6시 LA 한길교회

스트 유망주로 촉망받고 있는 학생이다. 최초의 흑인 여성 작곡가인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피아노 협주곡 (Florance Price, Piano Concerto in D Minor in One Movement)을 연주할 예정이다.

한편 2위를 차지한 예반 라렛(Evan Lafet)은 콜롬비아에서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USC에서 학사과정 중에 있는 바이올린 전공으로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협주곡 2번(Violin Concerto No. 2 in G minor, Op. 63, by Sergei Prokofiev)을 연주할 예정이다.

3등을 차지한 크리스토퍼 방은 현재 USC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다.

라크마 위너들에게 각각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1등 2명에게 각각 3천불씩, 2등에게 2천불 그리고 3등에게 천불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어 두 번째 무대로 바이텍스와 라크마의 플라보로 꾸며지게 된다. 먼저 바이텍스 앙상블을 통해 크리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COVID19로 인해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도 마음껏 못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돼 세계 어디서나 연주의 현장감을 맛 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연말,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는 계절이다. 우리의 이웃 아프리카어메리칸 커뮤니티와 함께 음악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가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연주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이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

http://theLAKMA.org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한 정보 및 다른 정보들을 더 볼 수 있고 티켓이나 연주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213)820-5737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라크마)

[알림] 11월 27일자는 정기휴간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회복 탄성력의 은혜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상처는 희망"입니다. 한국에 가면 가난농학교가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농사체험 농장학교입니다. 건물 뒤편에 밭이 있어 고구마를 캐는데 거의 아기 머릿통 만하게 씹니다. "이렇게 큰 고구마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종자가 다른니까? 무슨 특별한 비료를 사용하셨습니까?" 묻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김을 땀 때마다 호미 날로 슬쩍슬쩍 자국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고구마에 호미 날로 상처를 내고, 아물면 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 고구마가 열 받아서 이렇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열받은 큰 고구마"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힘들었던 올해 마지막달 12월에 지난 한해를 생각해봅니다.

특히 올해 1년은 다들 코로나와 이로 인해 파생된 꽤나 크고 깊은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반복적이지만 이런 저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하여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았고 또 상처주면서 살았습니다. 이 상처들을 그냥 안고 한해를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로 분명히 해결하고 나가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사는 자라면 그분이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즉 모든 것들이 서로 작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롬 8:28).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더 큰 시련과 환란이 닥칠지라도 능히 이기고 나가 승리게 하도록 연단과 단련의 호미질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호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상처조차도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딤후4:4).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내일일 때문에 오늘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전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2021년의 아픔과 상처조차도 연단과 단련을 통하여 "이때를 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회복탄성력의 은혜"를 주십니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 무너지고 꺾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회복탄성력", 즉 "유연성"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일어서는 회복탄성력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위에 자신을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내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줄 것 같아 바라는 마음, 내가 회복하고 재기할 것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참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 까닭은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진심으로 믿어주시고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리하시기 위해 우리를 주변에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친구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이미 잘 배치하셔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은혜가 서로에게 유전성 있는 회복탄성력으로 작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때 말씀이 쫓겨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성령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예비하신 은혜를 내 삶 안으로 잡아채어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WHERE ARE YOU?"(창3:6) "지금 너의 인생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입니다. 바울은 이 물음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13:5)고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과연 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가 게을러 곰팡이 슬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가 나를 나타내려던 자리는 아니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열심을 품고 사랑하며 교회의 유익과 건적이 되었는지? 등등을 즉,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분반공부를 기억합니다. 선생님은 "여리고 골짜기에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 물어보셨습니다. "강도,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여관주인 5명이네요" "아니야 6명이야 하나님도 계셔" 오늘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스토리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제 2021년을 보내는 준비를 합니다. 코람데오! 올해 한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믿는 자로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마지막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자리에만 분명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지치고 상한 심령과 더불어 2021년의 상처들을 회복탄성력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2022년을 희망으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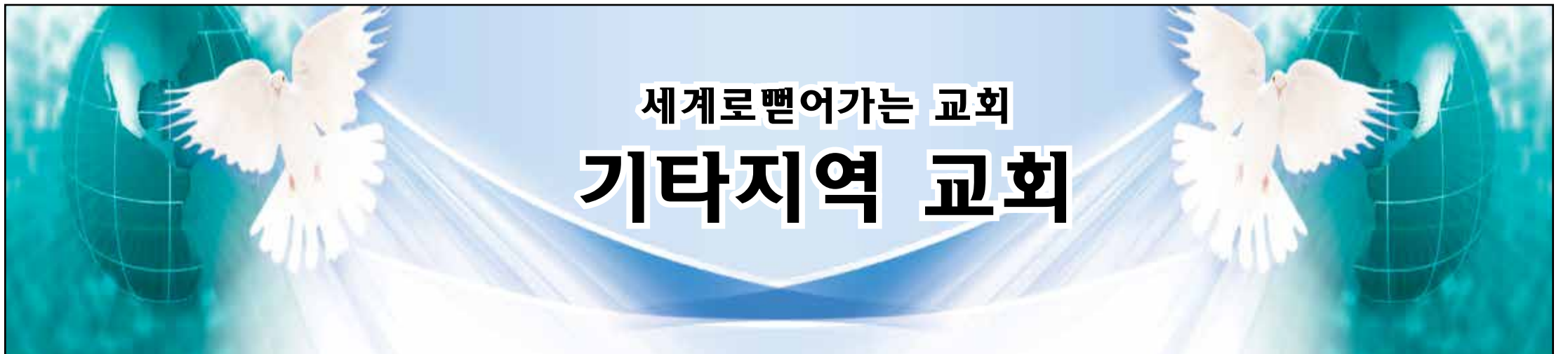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animok, Mungo, Berkus, Bethel, Boston, Andok, Alkansa, Ankery, Yeongsang, Killin, Wisington, Tacoma, and others.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복된 만남과 복된 헤어짐

인생이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부모를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교회 목사도 만나고

교우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의 끝은 언제나 헤어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본질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교회를 섬겨온 박 목사님과 헤어지는 날입니다. 박 목사님은 30대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하여 이제 50대의 중견 목사가 되어 떠납니다. 싱글로 왔었지만 이제는 아내와 가정을 갖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제자들이 이제는 엄마 아빠들이 되었습니다. EM의 전도사도 되었습니다. 참 보람 있는 목회를 하고 떠납니다.

전도서 3장에는 28가지의 때를 기록합니다. 태어나고 죽

고, 심고 뿌고, 죽일 때도 있지만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도 있으면 세울 때도 있다고 하면서 범사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그 끝이 다시 만남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며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박 목사님과 헤어짐도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때도 있음을 믿고 축복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미국 목사님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4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평균 3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간에 비하면 박 목사님은 19년을 섬겼습니다. 오래 참음과 기대 속에서 섬겨 왔다고 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박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 독립목회를 하겠다고 사임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나는 때가 아니라고... 좀 더 목회훈련을 하고 나이도 좀 더 많아진 후에 가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5년 동안 담임목사를 하는 이 교회를 거쳐 갔던 수많은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었지만 결국은 자신과 다시 만날 때도 있음을 믿고 다양한 미래를 펼쳐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를 작은 어항 안에서 기르면 작고 아담한 사이즈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강에 내어놓으면 1미터 정도로, 바다에서 기르면 2미터가 넘는 초대형 물고기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도 이제 인생의 연륜이나 목회의 경력을 갖고 성령 안에

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 큰 사역을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섭섭함보다는 기쁨과 소망 찬 격려의 헤어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지만 다시 비구름이 되어 땅으로 쏟아집니다. 쏟아진 빗물들은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흐르면서 온 땅의 생명을 틔웁니다. 계속 꽃과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 주님의 또 다른 사역과 믿음의 꽃과 열매가 되어 다시 만날 날을 격려하며 축복으로 보내는 날이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만남과 복된 헤어짐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뜻을 아름답게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jkym47@gmail.com



푸/른/초/장

주원열 목사

(로드아일랜드중앙한인교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모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 이름이 나오는 곳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경우에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먼저 3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왜 다윗이 메시아의 족보에서 중요합니까? 다윗 왕은 왕중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메시아 예언은 점점 그 범위를 좁혀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 하여 메시아는 인성을 입고 오시는 분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여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임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조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 자식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며 영원히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국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다윗

의 후손으로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어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결의 영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육신으로는”이라는 구절(according to the flesh)과 “성령으로는”라는 구절(according to the Spirit)은 바울

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성령을 대조할 때마다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바울서신에서 육신과 성령의 대비는 인성과 신성의 대비입니다. 자연과 초자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육신적 혈통과 신령한 신분의 대비인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누구의 자손인가를 밝혀주는 인간족보로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하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고 남북 왕조로 분열 후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으로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여고나, 곧 여호아긴까지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열네 대로 줄였기 때문에 빠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8절의 요람과 웃시야 사이에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족보의 두 번째 부분인 다윗부터 여고나까지의 열네 대는 실제로 왕위에 오른 왕들의 royal line입니다. 곧 예수님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과 남유다 왕들로 이어지는 royal line에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였는데, 그들에게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

은 할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전령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배치시켜서 죽이라고 밀명을 내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큰 죄를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갈3:16, 창22:18).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족보에는 네 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의 이

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것도 네 명 모두 온전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죄와 허물로 얼룩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허물 많은 여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였던 아브라함과 치명적인 죄를 범하였던 다윗이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 족보가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도 세우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동참하게 하여주셨습니다.

성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허물과 실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로 오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충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허물과 실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로 오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충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허물과 실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로 오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충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족보(THE GENEALOGY OF GRACE)

마태복음 1장 1-17절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진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 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p>FAMILI Study (Hee Choi, MS, RD)</p> <p>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p>전화: 646-501-3673 646-501-3674</p> <p>문자: 929-410-4475</p> <p>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p> <p>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땅의 축복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 된다. 주의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키며 저들의 살아가는 땅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성경과 인류의 모든 실제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교회와 예배가 온전할 때 나라와 민족이 살고 가정과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최고의 복된 존재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나라와 민족은 복이 없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을 내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땅이 변하고 좋아지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 삶의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회와 더불어 놀라운 기적을 맛본 우리 한국 민족의 삶과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저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은 믿지를 않을 뿐

히 교회를 출입하면서 말씀을 듣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속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이 거지가 일을 마치고서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대체 잠이 오지를 않더라는 것이다. 물론 집이라고 해봤자 다리 밑에 가마니를 깔고 덮어 놓은 것이 전부였을 터인데, 하늘 위 다리 밑을 쳐다보는 데 잠이 오지를 않더라는 것이다. 지붕처럼 여기는 다리 밑 천정위로, 자식들 얼굴이 하나 둘씩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못나고 못나서, 이런 거지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자기 자식 놈들도 자기 처럼 똑같이 강퍽 들고 남의 집 돌아다니며 거지노릇 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를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거지가 뭘 했느냐?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었기에, 마음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난 것이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회를 향해 기도하러 달려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이모저모 기도를 하는데, 또 말씀 중에 들은 것이 생각나더라는 것이다. 간절한 기도일수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수, 오직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살았던 많은 이들 가운데,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국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주님 말씀이 그대로(고전 1:27) 성취가 된 것이다.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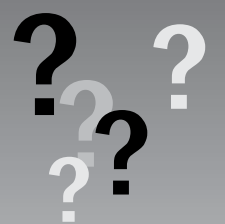
오늘날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인 승동교회 같은 경우에도 곤당골이라는 백정골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겨난 경우이다. 그곳에 양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갈라졌다가 다시 화합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상전과 노예가 차별이 없는 새롭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복음 안에 거지 백정 상놈 양반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거지같은 인생을 살아도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서 교회의 예배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증거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천히 여김을 받던 거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 거룩한 거지가 되었고, 세상에

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조금 있는 땅마저 팔고 나면 나중에 뭘 해서 먹고 살겠나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대신 인즉 소작도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 그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선교사님은 이 백사경의 가정을 데려다가 교회 사찰 집사를 시키게 된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니, 주님께서 아예 교회에 들어와 살도록 하신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사찰 집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보기에 그 아들이 참 똑똑해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 한국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이 합쳐져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된 백낙준 박사이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로 통해서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과거에 교회 권사님들이 식사 후에 약 한웅큼을 접수시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지금은 저도 혈압과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약이 100% 효과가 있을 것인지? 확신은 없습니다. 아직 나의 수준은 성경말씀도 재미가 있어 읽는 것보다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시니 약처럼 건강을 위해 매일 먹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면 과연 삶의 변화가 올까요?
- 칼슨의 흥 집사

A: 약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먹어야 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더 효능이 좋습니다. 소위 플라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플라시보는 'I shall please'(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란 가짜 약에 의해 치료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이지만 어떤 약에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해 환자에게 투여하면 실제로 그 효과를 거둔다는 이른바 소위 '위약(偽藥)효과'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그 약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믿음으로서 약의 성분과는 상관없이 실제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경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큰일 성취

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화제를 수면제로, 혹은 증류수를 해열제로 위장해 투여해도 잠을 잘 자고 열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환자의 약 35%에 이러한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1978년 캘리포니아 연구팀이 사랑니를 뺀 직후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통제와 플라시보(가짜 약)를 잇달아주어 그 효과를 살펴보았더니, 플라시보를 복용한 사람의 1/3은 통증이 훨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플라시보를 진통제라고 믿는 바람에 뇌 안의 엔돌핀의 진통작용이 일어났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효과가 좋은 약을 사용하더라도 그 약을 환자가 불신하고 있으면 약 70%의 효과밖에는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약을 환자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면 130%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 따라서 두 배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삼 마음의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속임수 같은 말에 현혹되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자기가 다급하고 꼭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뭐든지 다 좋게 보이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믿으려 듭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가끔 기적 같은 일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플라시보효과' 정도로도 생각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별 것 아닌 것처럼 불신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큰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말씀은 진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고 할 수 없다는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2002년 한국이 히딩크 감독을 중심으로 체력과 실력이다 이길 수 있다는 정신력으로 뭉쳐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진 실력의 130% 이상을 발휘하여 세계 4강에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교회, 세상과 삶의 축복 1

-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

아니라 외려 많은 배척과 핍박을 드러내었다.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좀 달라고 하니, 땅도 매매를 하지 않는다. 겨우 사정을 해서 땅을 얻었는데 대부분이 쓸모없는 산꼭대기나 혹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해서 오늘날 한국의 백년이 넘는 교회들이 대부분 높은 지대 위나 혹은 높은 고개 마루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깨닫게 한다. 성경 말씀처럼(마5:14-16) 온 세상을 밝히는 십자가의 등대불이 된 것이다.

양반들이 배척했던 그 복음을 처음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양반들은 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 쉽게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당시에 천민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상놈, 거지, 백정과 소수의 양반계급이 주 성도들 층을 이루게 되었다. 특별히 거지들은 남는게 시간이니 교회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았겠는가? 일정하게 출근할 일도 없고 선교사님들의 배푸는 의료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것이다.

차별 없는 복음의 축복

그러던 중에 초기조선 복음화과정 중에 일어난 예피소드가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거지 중에서 믿음 좋은 거지가 생겨난 것이다. 열심히

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막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외치며 부르짖던 기도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깨우게 하셨는지, 놀라서 달려온 선교사님이 거지에게 묻는다. "당신 무슨 일이나?" 그때에 그 거지는 자기의 삶을 아주 진지하게 눈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신은 운명처럼 그렇게 거지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자식 놈들도 자기처럼 거지로 살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고 한다. 어차피 조선 교회를 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메시지로 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거지, 상놈, 백정들의 자녀들 가운데 안식년에 미국을 방문할 때 직접 데리고 가서 저들에게 신학교와 유수의 명문학교 공부부를 시켜서 자신들의 선교지와 학교 등을 물려받아 사역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장로교신학교가 프린스턴이었으니 이곳 동부의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도록 배려를 해서는 한국에 세운 미션스쿨의 교수와 목사로서 봉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한 5-6대를 지나가는 가문들을 보면 그들 중에 양반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된다. 양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중에서 오직

서 업신여김을 받던 상놈이 예수를 믿으니 거룩한 상놈이 되었으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백정이 참된 교회의 예배자가 되니 마침내 거룩한 백정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엄청난 변화의 능력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사랑, 헌신의 축복

평안도 정주 땅에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원래 점을 봐주던 그런 남자 무당이었는데 지나가는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았다고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 그렇게 하고 살 것이냐,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보시오. 자식 망하는 길을 버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를 믿어보라는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던 중에 마침내 그는 무당생활을 청산하고 교회를 나가면서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밭에 일을 하러 가던 중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고 있더라는 것이다. 흠으로 벽돌을 구워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저렇게 짓다가는 비가 내리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다.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 그는 자기에게 있는 열마 되지 않는 땅을 팔아 교회를 지으라고 몽땅 헌금으로 바쳐 버렸다고 한다. 선교사님이 볼 때 참 걱정이 되었다. 이제 예

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조금 있는 땅마저 팔고 나면 나중에 뭘 해서 먹고 살겠나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대신 인즉 소작도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 그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선교사님은 이 백사경의 가정을 데려다가 교회 사찰 집사를 시키게 된다.

기복신앙, 만복의 근원

그런데 이런 교회 섬김으로 인한 축복을 말할 때 기복적이라는 말로서 이를 폄하하는 분들이 많다. 저들은 쉽게 말한다.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섬김이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다. 강단에서 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자기의가 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복신앙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영육간에 그 삶에 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 인터넷 지식의 짜깁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제한시켜 버리고 스스로의 영혼을 너무나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본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복을 구하고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기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복신앙이 무엇인가? 기복(祈福)이라는 것은, 인생 스스로가 자신의 욕심에 근거하여 원하는 복을 정해두고서 이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피조물 대상에게 앞뒤 빌며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행

위를 말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에 그 복이 만족되지 못하면 언제라도 그 섬김의 대상을 바꿔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상을 섬기는 종교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은 만복(萬福)의 근원이다. 이 말은 복이 만(萬)가지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천지만물,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모든 복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뜻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한량없이 연약한 인생이 만복의 근원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무엇

보다 아들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자신의 삶을 드러 헌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어떻게 기복신앙이라는 세상적인 이름으로 매도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우리 민족, 우리 조국,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의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 그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davidnjon@yahoo.com



목회서신



ye seung-hoon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본전치기 인생과 감사

요즘은 사라졌지만 옛날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 가운데 한 가지 "구슬치기"가 기억납니다. 약간 추운 겨울날 양지바르고 평평한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즐겼습니다. 한참 구슬치기를 하다가 나중

에는 한쪽으로 모여 앉아서 "짹짹"을 합니다. 짹짹이는 두 주먹 속에 구슬을 넣고 흔들 때 나는 소리 때문에 부처진 이름입니다. 짹짹이를 하면 일반 구슬치기 할 때보다 판이 커집니다.

어떤 날은 가지고 있던 구슬을 다 잃어버리면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구슬을 사와서 다시 합니다. 어느 정도 잃으면 멈출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최소한 "본전치기"를 해야 된다

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최소한 본전은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과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항상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손해 보았다고 생각하고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그분 스스로 더욱 힘들어지게 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해마다 밀 20만 섬을 수확할 수 있는 농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부"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과는 달리 톨스토이는 매우 간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아내와의 불화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집을 떠난 며칠 뒤 폐렴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기 며칠 전인 191년 1월 1일에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할 뿐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존재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급해주시는 분으로만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증집에서 종종 듣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주시고 저것을 해결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급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이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걸어 가신 소유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 바로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본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손해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성경에서 매우 파워풀한 말씀 하나가 소개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 할 것이다..." "Though God slay me, I will hope(trust) in Him..."(욥 13:15). 아,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죽이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품) 자체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음의 본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VOM, 신앙성경 4만권 배포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는 캐나다VOM, 기독교 지도자 훈련단체 미션유라시아, 교육 혁신을 실천 중인 미국의 벽 없는학교와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 지역 어린이들에게 신앙성경인 '액션바이블' 4만권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VOM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에선 2014년부터 무력 충돌과 북쪽주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북쪽주의연합은 유럽에서 교회의 고통이 가장 큰 곳으로 이 지역을 지목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코로나19나 분쟁으로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들을 대신해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액션바이블이 쓰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현지 기독교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성경을 나누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션바이블은 우크라이나인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다. 한국VOM은 주민 1000명이 사는 마을의 바냐 학교에서 액션바이블을 받고 눈물을 터뜨린 이야기를 전했다. 바냐가 사는 곳은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아이들은 폭발음을 들으며 학교에 다니고 주민들은 시장에 가는 등 일상을 이어간다. 한국VOM은 "바나의 아버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 전쟁이 난 뒤 감옥에 갇혔고 실종됐다"면서 "바나의 눈물을 본 사역자들은 그의 아버지를 지켜 달라고 기도했다"고 전했다.

미 목회자 10명 중 4명 "그만들까"

미국 목회자 5명 중 적어도 2명은 목회를 그만둘 고민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Barna Group)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목회자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92명(38%)이 전임 목회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그룹은 올 초에도 목회자 413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 당시엔 119명(29%)이 그만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10개월 사이 9%포인트 증가했다. 바나그룹은 목회자들이 심각한 '번아웃'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런 상황을 더 가속시켰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키넨 바나그룹 대표는 "코로나 19 이전부터 목회자들 사이에서 번아웃 증후가 보이기 시작하긴 했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18개월이 지난 지금, 성도들의 분열과 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하면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사역을 그만둘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바나그룹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이런

번아웃 증상이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바나 그룹은 "45세 미만 목회자 중 46%가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이는 45세 이상 목회자의 34%가 그만둘 생각이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고민은 목회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목회자 3명 중 1명만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건강함(Healthy)'으로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41%,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도 24%나 됐다. 바나 그룹은 전반적으로 목회를 그만둘 고민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다고 전했다.

키넨 대표는 "미국 교회 지도자들은 점점 더 큰 위기에 부딪히고 있다. 지금은 기독교 공동체가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그들이 건강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목회자들 역시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전에 잘 대비하고 돌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美 성인 58%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믿어"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응답자의 9%는 하나님이나 '거대한 힘'(higher power)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는 23일 미국 성인 6,4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8%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32%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또 다른 우주의 거대한 힘 또는 영적인 힘을 믿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가 "하나님이나 거대한 힘을 믿는다"고 했으며, 이는 퓨리서치가 동일한 설문을 실시했던 2020년의 89%, 2017년의 90%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응답자의 9%는 "하나님이나 거대한 힘을 믿지 않는다"고 했고, 이는 2020년 11%, 2017년 10%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응답자의 73%는 "천국을 믿는다"고, 62%는 "지옥을 믿는다"고 했다.

스스로 북쪽주의자로 밝힌 이들 중 96%, 흑인교회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 중 93%,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이들 중 90%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반면 북쪽주의자들의 91%, 흑인교회 교인들의 89%, 가톨릭 신자의 74%가 "지옥을 믿는다"고 했다.

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78%, 남성 응답자의 68%가 천국을 믿는다고 했다. 또 여성 응답자의 65%, 남성 응답자의 59%가 지옥을 믿었다.

또 응답자의 68%가 "모든 일이 발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고, 83%는 "삶에는

과학이나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44%는 "삶은 예지예정됐다(운명을 믿는다)"고 했다.

인도, 허락받지 않은 기독교집회 전면금지

인도 당국이 급진적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기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해, 수십 개 교회가 3주 연속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인도 당국이 "허락받지 않은 기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회람용 편지를 해당 경찰서에 보냄에 따라 마디아프라데시주 자부야지구의 50여 가정교회들은 더 이상 주일에 모일 수 없게 됐다.

지역의 한 목회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회람을 받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5개월 동안 힘들었다. 예배 인원이 40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 심지어 이 15명도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목회자로서 믿음을 위해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보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이 걱정"이라고 했다.

과거 지역 당국도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공지를 전달하며, 합법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증거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300여 명의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당국 측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문서까지 제출했으나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마디아프라데시는 "기독교인들이 힌두교인들의 개종을 강제하거나 물질적으로 유인한다"고 추정하는 '개종반대법'을 시행하고 있는 인도의 여러 주 하나다.

이러한 법률 중 일부가 여러 주에서 수십 년 동안 시행돼왔으나, 어떤 기독교인도 누군가를 기독교로 강제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법률은 힌두교 민족주의 단체들이 강제 개종을 빌미로 기독교인들을 허위 고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아무도 '신성한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인들이 천국 또는 지옥에 대해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 누군가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만약 북쪽주의적인 모임 후 간식과 식사가 제공된다면, 이는 '개종 유도'로 볼 수 있다.

인도 인구에서 기독교는 2.3%, 힌두교는 약 80%를 차지한다. 그런데 급진적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힌두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무력과 금전적 보상을 사용한 소수자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왔다.

올해 전세계 부패 순위 1위는 '북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미국에 본부를 둔 뇌물감시 비정부기구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최근 공개

한 '2021 뇌물 위험지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한 국가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뇌물지수' 순위에서 북한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뇌물지수는 94점으로 전세계 19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뇌물지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가지 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으로 판정한다.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 100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 100점, '정부·민간 업무 투명성' 73점, 그리고 '민간 감동 능력' 100점 등 4가지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북한은 지난해 뇌물지수 93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정부와의 상호작용' 항목이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전체 점수가 상승했다.

올해 세계에서 뇌물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2점을 받은 덴마크로 나타났다. 노르웨이(5점), 스웨덴(7점) 핀란드(7점) 뉴질랜드(8점) 독일(12점)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21점을 받아 청정 국가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21위에 위치했다. 일본(19점)과 미국(22점)은 각각 18위와 23위를 기록했다.

앞서 스위스의 위험관리업체 GRP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글로벌 부패지수'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196개국 중 최고점인 86.44점을 받아 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

파우치 "코로나19 토착병 될 수도..."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16일 내년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아닌 토착병(endemic)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이 개최한 온라인 행사 '토탈 헬스 콘퍼런스'에서 내년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어 지금과 같은 대형 공중보건 위기가 아닌 토착병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토착병에 도달하려면 여러번의 삶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염이 낮은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착병이 돼도 사람들은 여전히 감염되고, 병원에 입원할 것이다. 하지만 (전염) 수준이 낮아서 우리는 항상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토착병 단계에 도달했는지 판별할 수 있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매직 넘버'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떤 질병이 여러 국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때 팬데믹을 선언한다.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그 전보다 많아지면서 증가율이 치솟는 것이다.

반면 토착병은 해당 질병이 꾸준히 발생하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되면서 확산이나 환자의 증가율이 예측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파우치 소장은 토착병 단계로 가기 위해선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 샷(추가 접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부스터 샷 접종 캠페인을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도 그렇게 한다면 (내년) 봄에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식의 힘

“아는 것이 힘이다!” 경험을 중시하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1561-1626)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그는 하나씩에서 인간과 자연을 다스린다는 중세의 사상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동여 자연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여 얻은 지식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로 과학적 지식이 인류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적 사고가 중시될 수록 신학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은 지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도서관을 찾아가 전문서적을 열람하던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다. 전문가의 직업적인 도움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정보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달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오류가 전달될 수도 있다. 특히 유튜브 버들이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식의 힘이 매우 위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해석한 자료를 매우 쉽게 얻을 수 있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신학적 설명도 마찬가지다. 궁극에 하는 주제에 대한 설교도 거의 무한대로 접할 수 있다. 굳이 교회를 찾거나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 인터넷이 주는 유익이 대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의 팽창은 신앙인들에게 치명적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아는 것 자체가 힘이 될 수 없다. 신앙은 진리를 근거하기에 사실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요구된다.

과거에는 이단들이 교회 밖에서 활동을 하였다. 초대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을 정립할 수 있었다. 교회가 중심이었던 중세시대의 이단들의 활동이 크게 제한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단들이 등장하였으나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경계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다.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성도들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직접 접하기 시작하였다. 의도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음해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며 활동하고 있다. 이단성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또는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수록 신앙적 오류와 방종에 빠

질 수 있는 위험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신학

유럽에서 대학이 처음 생긴 것은 12세기의 일이다. 그 전까지의 교육은 교회와 수도원 부속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교가 형성되고 정기적 수업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실력을 갖춘 교수를 중심으로 소수의 학생들이 모였으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커져갔다. 그 결과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대표적 대학이 생겨났다. 1150년에 이탈리아의 볼로냐

올타리 안에 갇혀있는 실정이거나, 신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일부 목회자들만의 고민거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현재에도 선교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정을 통해 신학교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장로교의 경우 1901년에 평양에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감리교는 1887년에 서울에 배재대학에 설립된 신학부를 1907년에 독립시켜 협성신학교로 개교하였다. 신학생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신학교가 있는 도시를 찾아야 했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행하는 일

아는 것을 중요시할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교육은 지식의 전달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피교육자에게 아는 것만큼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신학교 마찬가지로 신학교 교육은 크게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중심으로 전환된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신학의 부재로 인한 여파는 생각보다 크다. 자유주의신학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

이런 원리는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을 위한 훈련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연말연시에는 새로운 직분자들에게 사역의 원리와 실재를 가르치기 위한 훈련으로 분주하다. 출석을 부를 정도로 참석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부득이 불참하게 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녹화된 강의를 반드시 들도록 요구한다. 그렇지만 훈련에 참석하여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사역내용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충실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공동체가 세상 단체와 무엇이 다를까? 성격과 성향, 그리고 경험과 가치가 매우 다른 자들이 모였다는 것이지 아니다. 교회가 교인을 선별하는 상황 속에서 매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공동체의 조화를 깨는 일들을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강도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모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서로의 마음에 맞추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앞세울 때 인간적 실수가 덮여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합을 성취할 수 있는 분명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목회자들은 물론 중직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신학적 고민이 요구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건전한 신앙생활과 사역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신학적 난제는 신학자들의 몫이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확립하고 실천할 때 인간중심의 불건전한 신앙의 모습과 인간관계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상대를 결코 존중하지 못한다. 20세기 위대한 변증학자인 코넬리우스 밴틸 (1895-1987)은 자신의 방식대로 얻은 지식을 중시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라(Thinking God's thoughts after Him)는 말을 남겼다. 이 시대의 교회와 귀를 기울여야 할 소중한 조언이라 생각된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7)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33) - 생각하는 신앙인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앙은 진리에 근거...검증되지 않은 지식 팽창은 신앙인에게 치명적 신학교육의 핵심은 생각의 변화...신학지식은 성경적 세계관 형성시켜

대학, 1200년에 프랑스의 파리대학, 1220년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이 좋은 예가 된다. 13세기 이후 많은 대학이 세워져 15세기에 들어 75개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대학의 교육은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되었다. 교양은 3학(문법, 논리학, 수사학)과 4과(음악, 산수, 기하, 천문학)으로 구성되었다. 교양과목을 마친 자는 오직 3가지 전공 즉 신학과 법학, 그리고 의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제 1의 학문은 역시 신학이었다.

현재 신학은 여러 학문의 일부로서 다뤄지고 있다. 계몽주의 이후 발달한 과학적 사고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며 증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신학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며 그 자체로 증명이 가능하기에 어떤 과학적 사고와 비교할 때 열등한 학문이 아니다. 그러나 진정 안타까운 것은 신학 자체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님 중심을 거부한 베이컨의 혁명적 사상은 이 시대에 두 관적인 판단을 절대화 하는 모습에서 그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신학은 중세 사상의 바탕이었으나, 현재는 신학교

이토록 어렵게 시작한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신학교를 통해 매년 엄청난 수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학생이 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중단하는 헌신에는 변함 없이 신학교육은 어느 때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한 것이다. 통신교육과 인터넷교육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신학공부를 반드시 어렵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좋은 학점과 학위를 어렵게 받는 신학교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말도 아니다. 신학생들이 처한 환경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며 소명에 충실하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신학교육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교 졸업과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잘못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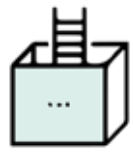
신학은 과편적 지식 이상이다. 신학교육의 핵심은 생각의 변화에 있다. 축적되는 신학지식은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시켜준다. 신학은 인간중심에서 하나님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신학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일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부터 변영신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중심의 이론은 크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중심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의 팽창 속에서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현대교회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자훈련일 것이다. 어떤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제자훈련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를 강조한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남들과 나누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꾸준한 제자훈련으로 단단해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매우 귀하다.

그러나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간의 제자훈련을 이수하였다고 신앙의 정점을 찍는 것은 아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열심히 외우고 깨우친 성경적 진리가 삶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자중심을 벗어나 하나님중심의 삶으로의 전환과 함께 근본적인 생각의 틀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종교인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근접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그 진리를 분명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Southern California (CA) region. Includes contact info for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주교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With Corona-19 문화: 종말론적 조망(Outlook)” (3)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 패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오 히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 사는 소수의 ‘남은 자들’(σντ, λειμμα, λοιπος, remnant: 사6:13,10:20,11:10-12; 렘 23:1-4, 31:7-8; 단1:8-9; 욕 2:28-32)을 통해 이어졌으며, 마침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 승천 하심으로 정점을 이루게 된다.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주도해 나가심을 확증하고 있다. 초대교회 제자들 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이어지다가(행 2:1-21; 롬9:27-29, 11:5),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천년왕국의 승리적 교회의 열매들로 거두게 될 것이다(계 12:17, 14:1-13, 20:4).

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 상세계에 임하는 7년 대환란 과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어지 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단선적 인 사건이 아니라 입체적인 스펙트럼으로 그려주고 있다. 처음과 나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곱 금 촛대 위를 거니

과 동시에 성도의 성화적 교훈으로 위로와 격려, 소망을 내포하고 있다.

점진적인 승리적 교회(4-19장)

지상 대 환란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환란을 통과하

는 영역으로 확대되며, 심층화 되는 특징을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7년 대 환란의 주도권이 때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주도권으로 그가 보낸 7천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대환란의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우상과 음란하게 혼합된 사악한 권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임을 입증하는 것이다(계15:1). 마침내 큰 음녀로 비유되는 바벨론의 멸망(18장)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탄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6:2; 19:11-16)과 그가 친히 통치하는 천년왕국(20장), 이후로 하늘로 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21장) 등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



현대 과학문명의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승리하심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보호와 인도 보증

한 마디로, 아무리 어둡고 불확실한 인류문명의 미래라 할 지라도 정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consummation)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7년 대환란기(the Great Tribulation)를 거쳐 가는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일 뿐 아니라 피조물의 구상이 완성될 그 날이야말로 인류문명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임을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그림언어로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구속사적 In-clusio(수미쌍관,首尾雙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

시는 그리스도의 모습(1장)은 대속의 승리와 함께 높이 들림 받고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그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지상교회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대안이 대표적으로 묘사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들(2-3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교회에 귀한 도전과 교훈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전개될 대 환란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실한 교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책망과 칭찬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상교회를 향한 경계와 경고임

는 승리적 교회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4생물로 비유되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둘러선 24장로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승리적 축제는 천상의 영광스런 예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4장). 이러한 막간을 통해 보여지는 천상의 장면은 앞으로 이어질 이 세상에 대한 7년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승리를 소망하고 동경하도록 그려지고 있다.

7년 대환란(the Great Tribulation)의 모습(6-18장)은 7인을 떼는 재앙, 7대접을 쏟는 재앙으로 구별되는데, 이는 점진적이며, 지속적이고 보다 더 넓

리, 곧 하나님의 구속사의 인클루시브로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된다면 코로나19 Pandemic의 상황이나 혹은 앞서 열거한 현대 과학문명의 불확실성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때로 지 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여전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약속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증되어 있기 때문이다.

johnhdc@yahoo.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도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삶이 답답한 이유

한번 뿐인 우리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 주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받지 못해서 애쓰다 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삶이 답답한 일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놀듯이 즐기며 일하다 가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부부끼리도 같은 달력을 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반찬을 먹고 살아도 한 사람은 힘들다고 하면서 짜증과 화속에 살고 한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사람이 같이 땀땀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여 성경에 쓰여진 이유는 자기 생각 속에 속고 또 속고 계속 속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이리라. 몸이 아프다는 생각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니 그런 엄청난 것들 말고라도 차가 막혀도.. 약속을 좀 어겨도.. 누군가에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가계에 손님이 없어도.. 아이가 좀 늦게 와도.. 나사처럼 쉽게 다 풀어지는 내 믿음이라서, 하루 종일 걱정과 두려움을 달고 사는 우리라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발이 분 초마다 필요한 우리가 아닐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삶의 이치인데 구태여 그것에 연연하고 목숨까지 하며 삶을 허비하며 살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나 보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는 하늘이 저렇게 과량과 아름다움도 모른다. 아니 하늘이 있는 것조차 까맣게 있고 평만 보고 답을 찾으려 급급해 한다. 삶이 답답한 이유는 인생에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란다. 자가 가진 답에 삶을 맞추려 하고 자연을 맞추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니 그야말로 답답하다. 삶은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큰데 말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 삶을 꿰 맞추지 말고 기쁨이 물려올 땐 기쁨 대로 고난이 몰아칠 땐 죽음을 다해 견디면서 내 속에 감춰진 보화 하나만 꼭 움켜쥐고 삶이 그냥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햇빛만 쬐면 짜증이 사막이 되어버리고 비만 계속 오면 흥수가 나듯이 비가 오면 비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자연에 몸을 맡기고 살면 그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한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리라

어떤 노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아이를 계속 찾아 헤맸다는데 우리가 찾는 행복이 아마 이 같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인데 그 행복은 있는 힘을 다해 주고 또 주고, 받고 또 받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고 또 받았는지 분간이 가지 않는 셈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수 없이 우릴 좌절 시키지만 내가 부여잡은 보이지 않는 내 속의 보화들이 퇴색되지 않게 셀 수도 없이 받은 복을 낚날이 세어보며 사는 율해의 남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08: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k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5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1:3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전교인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2/1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ly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금요일기도회: 화요일 새벽, 목요일 금요일 오전 7:30 Tel. (8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 Alves 261 Camocui S, 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석대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영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복”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기쁨과 자원하는 진정된 마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별로 반갑지 아니하고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여 영접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일 지라도 마음을 정리하여 그분을 영접하기로 마음먹고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을 하면 놀랍게도 내 마음이 기쁘고 그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마음의 작은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영접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영접하는 행위는 축복받을 행위입니다. 영접하는 자세는 나를 잘되게 하고 그를 잘되게 하는 축복의 시너

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접하기가 결코 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가까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인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깊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는 그를 영접함에 대한 고민이 극복되었고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하신 목회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4:4).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가끔 같은 교인인데 서로를 영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심적 부담을 가지는 교우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곤 합니다. 작은 실수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가지게 되는 극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을 영접하고 용납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실감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금년의 마지막 달을 하나님께 허락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허물진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이렇

게 삶을 가꾸어 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우리가 혹 교회 안에서 거부하는 그는 주님이 부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주인인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분들을 거부하는 교만적 실수를 하지 말고 겸손히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분들을 용납하고 영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마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하여 언제나 열려진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용납하지도 아니하는 자고 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2천년전 그날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요1:10-11).

가ם 아픈 보도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뒤로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상황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다는 보도입니다. 교인을 영접하지 못하는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않아서 거부하는 교회리더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는 복 받을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한국에 “아빠 찬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아버지를 둔 자녀는 엄청난 아버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아버지 아닌 다른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대단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얻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엄청난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에 오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느 주일 강단에서 장로님의 대표기도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문득 “이제 난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 깊이에서 성령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 아버지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곳 천국에 이만을 와서 있다.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깨우침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기도문을 하거나 주기도문 송을 부를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대목에서 눈물이 글썽이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꼭 알고 실천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쪼록 2021년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josupbois@hotmail.com



뉴저지교협 제35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복과 연합”에 통로가 되는 교협...

뉴저지교협 제35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35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6일 오전 10시30분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열렸다.

“회복과 연합”(역대하7:14)를 표어로 내걸은 35회기 회장 고한승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교회는 로컬교회만 아니라 공교회 즉 전체 교회도 교회다. 교협은 공교회를 연결하는 뜻 깊은 기관이기에 사역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팬데믹으로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데 서로가 필요하고 격려해야 할 때다. 서로 축복해주고 함께 회복하며 어려움을 건너가야 할 때다. 이일에 통로가 되는 교협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직전 회장 이정환 목사는 “행

복한 회기였다”며 “부족한 사람이 사용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이 감사”라며 하나님과 임원들과 회원들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목사는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전 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35회기 뉴저지교협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무 김동권 목사(뉴저지 새사람교회) △기독교서기 양혜진 목사(뉴저지길교회) △사무서기 이용일 목사(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사무회계 전경엽 장로(필그림선교교회) △기독교회계 한동원 목사(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

한편 지난 정기총회에서 목사

부회장과 평신도 부회장, 감사 등이 선출되지 못해 내년 1월 임시총회를 통해 나머지 선거가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사회 김동권 목사, 성경봉독 양혜진 목사, 찬양 뉴저지사모회, 설교 이의철 목사(전 회장), 헌금기도 한동원 목사, 헌금송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축도 장동신 목사(전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의철 목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막2: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협을 바라보고 있다. 교협 산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평화의 도구가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심하는 연합을 통해 지역에 대가성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2부 이취임식은 사회 총무, 교협기 전달, 기도 박상천 목사(전 회장), 이임사 이정환 목사(직전 회장), 취임사 고한승 목사(신임 회장), 임원소개 회장, 축사 김희복 뉴욕교협회장 윤명호 뉴저지목사회 회장, 축가 소프라노 전계향 집사, 직전 회장에 공로패 증정, 폐회기도 김경문 목사(전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목사회 제12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주님을 위하여! 목사님들을 위하여!”

뉴저지목사회 제12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뉴저지한인목사회 제 12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8일 오전 10시30분 뉴저지 섬기는교회(담임 박순탁 목사)에서 열려 이의철 목사가 이임하고 윤명호 목사가 취임했다.

“주님을 위하여! 목사님들을 위하여!”(산7:18)라는 표어를 내걸고 출범한 12회기 회장 윤명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승리를 거둔

가드온의 300명 용사들처럼 험한 세상에서 목사로써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목사님들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나간다면 범사에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제 12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윤명호 목사 △부회장 홍인석 목사 △총무 오범준 목사 △서기/기록서기 오대석 목사 △회계/기록회계 신대위 목사.

실행위원은 △목회분과 김종국 목사 △교육분과 박순탁 목사 △음악분과 김동권 목사 △체육분과 권형택 목사 △경조분과 박인갑 목사 △홍보분과 권광희 목사 △감사 이의철 목사, 김중윤 목사.

주요 사업계획은 △구세군 자선남미 사중식(11월20일)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2월 14-16일) △미국내 난민선교 비전 트립(3월 14-19일) △체육대회(6월 2일) △KM과 EM 목회자 친교(7월 7일) △성극관람(8월 25일) 등이다.

한편 목사회는 1부 예배와 3부 이취임식 사이에 2부 임시총회를 열고 8명의 신임회원(총회 참가 3명)들을 통과시켰다. 그 명단은 강신균, 고훈천, 권해택, 김다니엘, 김신율, 오종민, 신태훈, 최다니엘 목사/사관 등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월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후원자의 날’ 내년 봄으로 연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월례회가 24일 오전 10시30분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현재 뉴욕교계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기아대책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세를 잃지 말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2일로 예정됐던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는 내년 봄으로 잠정 연기됐다.

또 12월 17-20일 한국기아대책본부 국제부장(고수미)과

남미선교본부 사업본부장(주종범)이 뉴욕을 방문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재정 및 아동후원 보고가 있었으며,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의 현지상황을 알리는 선교편지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공지했다.

1부 예배는 권캐더린 목사 인도로 기도 한준희 목사, 말씀 한필상 목사, 합심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축도 박진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필상 목사는 “선한 청지기의 삶”(벤전4:7-11)이라는 제

목의 설교에서 “들뜬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데 보호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다. 목회자의 사명인 청지기적 삶에 조심해야 할 3가지(Gold, Girl, Glory) 중 돈(Gold)과 여자(Girl)는 쉽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Glory)을 취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다”며 “청지기로 부름 받은 자는 모두 선한 청지기로 출발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나의 소욕이 점점 들어갈 때 악한 청지가 된다. 주님의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자”고 말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전 세계 빈곤국 아동후원을 주사역으로 하고 있으며 월 30달러로 아동 1명을 후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read&gospel.org)를 참조하면 된다.

▲후원문의: (917)620-8964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 (유원정 기자)



김점옥 박사가 ‘현대문화의 흐름과 목회’ 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대문화의 흐름과 목회”

바울목회연구원 세미나, 강사 김점옥 박사

바울목회연구원(대표 문석호 목사)가 주최한 “현대문화의 흐름과 목회” 세미나가 26일 저녁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 교육관

에서 개최됐다. 문석호 목사는 “이 시대 문화의 영향으로 받으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고민이 된다. 오늘 현대문화의 흐름에 대해 강의를 듣고 목회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하고 강사를 소개했다.

강사 김점옥 박사는 애틀랜타 글로벌버니트신학교 교수로 이날 ‘포스트-크리스천’ 사회와 목회에 대해 강의했다.

김점옥 박사는 “후기 기독교 사회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져 기독교의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내면은 기독교적이 아닌 상황을 가리킨다(딤후3:1-7)”고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현실은 1)자신의 해석과 선택 2) 나름대로 만족(허용) 3)본질과의 거리 4)자기 속임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10면으로 계속)

‘추수감사 찬양 콘서트’ 진행

‘응답하라 친구들’ 유튜브방송 30회 기념

‘응답하라 친구들’ 유튜브방송 30회를 기념해 새롭게 오픈한 The History Coffee에서 온프라이드/온라인 라이브 콘서트가 11월 18일 저녁 8시 더 히스토리 커피에서 열렸다.

찬양사역자이자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박갑수 목사(나성한인교회) 진행으로 열린 이날 라이브 콘서트는 ‘추수감사 찬양 콘서트’로 진행됐다.

이날 콘서트는 봄, 박아름 사모, 박진규 목사, 박갑수 목사, 랜디김, 이민우 전도사, 강석변 전도사, 조영석 목사가 찬양했으며 기타리스트 김진수, 색소폰 연주자 박찬경 전도사가 찬양연주를 했으며 박갑수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갑수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모처럼 같은 공간에

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공원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영석 목사는 “한인타운 가까이에 공연과 이벤트가 더욱 많이 생겨 같이 찬양하고 노래할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란다”며 “또 찬양사역을 꿈꾸는 친구들도 더 많이 생기고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되며 새로운 사역자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들 어볼 기회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가 주관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가 12월 7일(화) 오전 8시 레오날드 연회장에서 열린다. 한편 이영훈 목사 초청 부흥성회가 8일(수) 오후 8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제3차 뉴욕목회자 및 지도자 중독 세미나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가 진행하는 제3차 뉴욕목회자 및 지도자 중독 세미나가 12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30여년간 한국에서 중독자 교육 및 청소년 중독예방교육과 중독자 가족상담을 하고 있는 김도형 박사(CITS 대표).

▲문의: (718)683-8884

회계감사보고 없이 회의 강행

제 50회기 뉴욕목사회 정기총회 ‘파행’ 오명 회장 김명옥 목사, 부회장 김홍석 목사 선출

제 50회기 뉴욕목사회 정기총회가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려 신입회장에 김명옥 목사, 부회장 김홍석 목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감사보고를 하지 못하고 재정보고도 통과하지 못해 ‘파행 총회’가 됐다.

감사 한석진 목사와 권캐더린 목사는 총회록 감사평에 △1차 모임 때 회계장부의 이월금액과 2차 모임 때 회계장부의 이월금액 차이(2,400달러 정도) △자출에 체크 발행이 없다 △수입 지출 항목이 세분화 되지 않았다 △2차 감사 때 회계불참 등의 이유를 열거하고 따라서 회계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 선관위원장 김용익 목사가 선관위 보고를 낭독하고 회장 후보 김명옥 목사, 부회장 후보 김홍석 목사를 소개하고 출마조건 발표를 강행했다.

이어서 임태현 목사가 단독 회장후보이므로 박수로 추대하자고 하고, 송일권 목사가 부



제 50회기 뉴욕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도 단독후보이므로 박수로 추대하자고 해 그대로 받았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허윤준 목사, 한재홍 목사, 박이스라엘 목사 등 몇몇 회원이 진행의 부당함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입회장으로 선출된 김명옥 목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며 “잃어버린 신의를 되찾는데 앞장서자.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목사회 위상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부회장 김홍석 목사는 “회장을 도와 목사회 화합과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로 장규준 목사, 이은수 목사, 송일권 목사를 추천해 그대로 받았다.

김진화 목사는 신구임원 교체에 앞서 임시총회에서 제명된 직전회장 이준성 목사에 대한 잘못을 성토했기도 했다.

이날 신입회원으로 이인철 목사(나인성교회, 백석미주동부노회), 김사라 목사(Holiness Church, International Pentecostal)가 가입됐다.

Church, International Pentecostal)가 가입됐다.

또 전회의록 낭독에서 임시총회 서기보고 회의록에 ‘다, 각 언론사에 대해서’ 항목은 삭제하고 반기로 했다.

또한 김명옥 목사에게 공로패를, 유태웅 목사, 임태현 목사, 노기명 목사, 김정숙 목사, 심화자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총무 유태웅 목사 인도로 기도 김정숙 목사, 성경봉독 심화자 목사, 특송 안경순 목사, 설교 및 축도 박희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희소 목사는 “속지 말라”(약1:12-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은 남을 속이는 것보다 속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속는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 물욕, 명예 권세욕, 식욕, 성욕의 4가지 욕심을 취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수위를 조절함으로 욕심 없는 사람으로 기쁨충만, 은혜충만, 성령충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50회기 총회 참석자는 예년에 훨씬 못 미치는 42명이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 제27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표 최호섭 목사, 이사장 정인국 장로

뉴욕청소년센터 제27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제27회 정기총회가 11월 17일 열려 새 대표에 최호섭 목사, 새 이사장에 정인국 장로를 선출했다.

오전 10시 뉴욕교협 2층에서 개최된 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회무로 진행됐다.

전임 황영송 목사의 추천으로 박수로 선임대표로 선임된 최호섭 목사(뉴욕영락교회 담임)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오래 동안 이사로 재직했는데 잠깐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역들이 잘 진행되도록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섬기겠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신임 이사장은 전임 송윤섭 이사장이 부이사장인 정인국 장로를 추천했다. 정인국 장로는 “많이 지도해주시고 함께 귀한 사역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1부 예배는 최호섭 목사 인도로 기도 주영광 목사, 성경봉독 백담영 장로, 설교 김희복 목사, 광고 사회자, 축도 황영송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는 “나라를 살리는 다향”(삼상 17:20-2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에는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며 “AYC를 살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AYC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훈련된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린다”고 말했다.

김희복 목사는 AYC를 적극 후원하겠다고, “교협과 AYC가 함께 집회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송윤섭 이사장 사회로 허윤준 목사의 개회기도 후 감사보고(김영철 목사), 회계보고 및 프로그램 보고(김준현 사무총장), 임원선거, 예산안 심의, 신안건 토의, 상패 수여(전 대표 황영송 목사, 전 이사장 송윤섭 장로) 순서로 진행됐다.

AYC 지난 회기 수입은 85,606달러, 지출 80,031달러였으며, 펀데믹 회복을 기대하는 2022년 새 회기 수입과 지출 예산은 113,000달러다.

지난 회기 사업은 △온라인 시대 자녀관리 학부모 세미나(줌) △가정폭력 목회자 컨퍼런스(줌) △유튜브 콘텐츠 스트 △청소년할렐루야대회 △매일 3분(말씀, 찬양, 인터뷰) 유튜브 미디어로 보고했다.

신안건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의 사례비 인상은 임원회에서 논의결정하기로 하고 박윤선 목사의 폐회 및 식사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정기총회 1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김원기 목사, 부회장 이만호 목사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정기총회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정기총회가 11월 24일 오전 11시 거성 식당에서 열려 신입회장에 김원기 목사, 부회장 이만호 목사, 총무 정순원 목사가 선임됐다.

김원기 목사는 “지난회기 회장 이병홍 목사의 대행으로 8개월간 회장직을 맡아왔다”며 “회장으로 뉴욕교협이 안정되도록 기도하고 선도하는 증경회장단의 일을 잘 섬기고 회원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동익 목사가 신안건으로 제출한 이종명 목사의 회원권 회복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회장 김원기 목사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해 투표결과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총회에는 유례없이 많은 증경회장들이 참석했다. 참

석자는 회기별로 박희소, 김용걸, 장석진, 방지각, 한재홍, 안창의, 황경일, 김영식, 이병홍, 황동익, 최창섭, 신현택, 김원기, 양승호, 이재덕, 이종명, 이만호, 정순원, 양민석, 문석호 목사(20명).

1부 예배는 이재덕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식 목사, 설교 박희소 목사, 축도 이병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희소 목사는 “인내”(히 12:1-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 모두 인내했기에 목회할 수 있었다”며 “인내를 배우는 3가지로 1)경주를 통해서 배우라 2)배신의 아픔을 통해서 배우라 3)장계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하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인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서 이만호 준비위원장이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뉴욕목사회 정상화 위한 모임

목사회증경회장단 및 회원들 모여 합심기도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를 위해 뉴욕교계 목회자들이 26일 저녁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던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오후 6시 30분부터 그 자리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뉴욕목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목사회 증경회장들과 교계를 염려하는 회원들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고 이날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준비위원장 이만호 목사와 준비위원 문석호, 신현택, 김원기, 이재덕, 정순원, 한재홍 목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9회기 목사회

를 ‘사고 회기’로 명명하고 목사회가 △선관위의 불의한 방식 △재정사용의 부정과 탈법으로 △목사회 본연의 성격인 친목을 훼손시켰다는 등 모임 소집이유를 밝혔다.

이만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문석호 목사, 김원기 목사, 한재홍 목사, 정순원 목사, 신현택 목사 등이 차례로 발언했다.

마지막에 통성으로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상열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폴 김 선교사가 100독 성경통독 세미나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뉴욕교협 “100독 성경통독 세미나” 강사 폴 김 선교사

뉴욕교협이 주최한 “100독 성경통독 세미나”가 18일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희복 목사 인도로 100독 간증 박병국 집사(아름다운교회), 환영사 김희복 목사, 강사소개 양민석 목사(세미나위원장), 강의 폴 김 선교사, 100독 간증 황숙희 전도사(두나미스신학교) 유니스 전도사, 헌금기도 허윤준 목사(전도대회준비위원장), 광고 임영진 목사(총무), 축도 안창의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강사 폴 김 선교사(북한)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6개월간 눈을 또 짝 못할 때 성경통독을 시작하게 됐다. 성경통독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평신도에게 적합하다. 통독을 하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구원역사가 일어난다. 병이 치유도 체험한다.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 교회부흥과 연결된다. 통독엔 깊이가 있어서 설교가 아니지만 회개의 영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사역을 소개하며 현재 중국,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아랍권까지 확대됐으며 혼자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성경통독 7단계 중에 1단계는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를 듣고 읽는 것인데 1.4배속으로 듣는다. 단계가 올라가며 읽는 본문도 달라지며 내용도 많아진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17일), 영생장로교회(24일)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35회 찬양축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제 35회 찬양축제가 지난 17일과 24일 저녁 퀸즈장로교회와 필라 영생장로교회에서 연이어 열렸다.

17일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 찬양축제는 학장 정기태 목사 인도로, 기도 학생회장 임지홍 학우, 성경봉독 부회장 주경옥 학우, 신학교찬양대 찬양1, 말씀 학장 김성국 목사, 신학교찬양대 찬양2, 헌금 및 봉헌기도, 광고 학감, 축도 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학장은 “그루터기는 남아있다”(사6:13)라는 제목으로 말씀에서 그루터기 사진을 보여주며 “잔란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잘라지고 찢겨서 저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저 그루터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희망을 노래하는

그루터기이다.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뿌리까지 뽑아가라는 자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모습을 처참하지만 그 뿌리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가지라”고 전했다.

24일에는 필라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에서 찬양축제를 개최했다. 교회설립 50주년을 맞은 영생장로교회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 장학금이 전달하기도 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대는 매년 가을, 후원 및 동문 교회들을 순회하며 찬양제를 개최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에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35회 찬양축제가 열렸다.



영생장로교회에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35회 찬양축제가 열렸다.

(9면에서 계속)

또 Stuart Murray가 언급한 후기기독교의 이동 변화, 후기기독교의 근원, 문화 신학화-상황화 이론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성경적 대안으로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의 경우를 설명하

며 1)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가 2)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변화될 수 있는가 3)킹덤라이프를 복원할 수 있는가 등을 결론으로 설명했다.

(유원정 기자)



2021 밀알 자원봉사 시상식 수상자들

사랑의교실 봉사 고교생 총46명

2021 밀알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교실에서 봉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13일 진행했다.

이날에는 밀알 모든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시상식을 개최했지만 올해는 Covid-19 방역을 위해 각 브랜드 별로 행사를 진행했다. 시상식은 금상 8명, 은상 4명, 동상 32명, 하원의원상 2명 등 총 46명이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남가주 OC지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전 세계 밀알선교단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핵심사역으로 자리 잡아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미주밀알선교단 산하 15개 지단, 2개 지소에서 사랑교실을 통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와 교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현재 OC, LA, 동부LA, 엘바인, 토렌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랑의교실이, 산타페스프링스에 위치한 밀알 사무실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교실이 매주 진행되고 있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 순종

엔젤스교회 추수감사절 이웃사랑 초청 잔치

엔젤스교회(담임 이미에 목사)는 추수감사절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엔젤스 플라자관에서 열었다.

엔젤스교회 원로 윤종명 목사는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공허한 남는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웃사랑 초청 잔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명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1부 예배는 헤세드클러빌

예술선교회(단장 헤세드 김 목사)의 몸찬양을 시작으로 이미에 목사가 대축일 기원, 에버그린여성합창단(지휘 노혜숙)이 합창했으며 윤종명 목사가 ‘주예수를 믿으라(행16:3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노혜숙 권사가 특송, 에버그린여성합창단이 합창했으며 이윤수 목사(미주예성 서부지방회장)가 축도했다.

2부 초청 잔치는 박민홍 원장(풀러턴 빌라양로호텔) 사회로 열렸으며 경품추첨과 도식락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엔젤스교회 추수감사절 이웃사랑 초청 잔치



엘피스가정사역원 주최 벵킷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역으로

엘피스패밀리 벵킷, 후원자기도와 헌신 당부

엘피스가정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 주최 엘피스패밀리 벵킷이 21일 오후 5시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김미경 사모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박운송 목사가 환영인사, 박성민 목사(SG선교회 대표)가 기도, 김웅민 목사가 ‘선교사(요 20: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웅민 목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다. 예수님의 대사로 부르심 받은 자다. 그런 자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주고 큰 은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가 축도했다.

식사에 이어 열린 2부 순서

는 시 낭독, 황화진 선교사 선교간증, 장지혜 사모와 김은주 사모의 하브루타 간증, 이경민 간사, 박운송 목사의 사역보고 및 계획, 엘피스 임원들의 하브루타 상황극으로 진행됐다. 벵킷은 모든 이들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이날 박운송 목사는 “엘피스 가정사역원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으며 사역현장에서 부여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넘쳐났다”며 “엘피스 가정사역원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역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 많은 격려 권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이혜자 음악여정 47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이혜자 음악여정 47주년 기념음악회

이혜자 음악여정 47주년 기념음악회가 보나뮤직(대표 이혜자) 주최로 11월 20일 오후 5시30분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혜자 대표는 “일기장을 넘길 때 어느 날은 마음이요 어느 날은 흐림, 어느 날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린 날의 반복된 세월이었지만 어린 천사들의 해맑고 투명한 노래 소리에 묻혀 마흔 일곱 해를 지내왔고 그 여정은 그야말로 행복한 여정이었다”며 “지난 47년간 제 곁을 지켜주셨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

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김종숙과 테너 양두석 사회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바리톤 장상근, 테너 백동휘, 오위영, 전승철, 소프라노 이영주, 김종숙, 이나은, 지경, 바리톤 권상욱,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원순일, 베이스 장진영 등 출연자들이 이혜자 씨의 작품들을 불러 가을 하늘 저편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날 음악회는 전 출연자들이 이혜자 씨의 ‘우정’을 함께 부르며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 어린이 한국동요축제

남가주 어린이 한국동요축제가 보나기획(단장 이해자)과 해피빌리지 주최로 12월 4일(토) 오후 3시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368-2630

2021 소망 감사의 밤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2021 소망 갈라감사의 밤 행사를 11일(토) 오후 5시30분 세리토스에 있는 Cerritos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Sierra room)에서 갖는다.

▲문의: (562)977-4580

기금모금 위한 아모르 음악축제

SG선교회(대표 박성민 박사)는 과테말라 원주민 어린이 영재학교 기금모금을 위한 아모르음악축제를 6일(월) 오후 6시 옥스퍼드팰리스 호텔에서 갖는다. 이날 아모르음악축제는 소프라노 글로리아안, 이영주, 김종숙, 테너 오위영, 최원현, 바리톤 채홍석, 피아니스트 김경미가 출연한다.

▲문의: (818)331-5478

주방조리사 모집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주일 식사 담당 주방조리사를 구한다. 자격은 주방관련 유경험자.

▲문의: (714)521-0991



좋은마음교회 안우성 장로임직 예배에서 안우성 장로가 안수받고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자’

좋은마음교회 안우성 장로임직 예배

좋은마음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안우성 장로 임직예배를 11월 28일 오전 11시45분에 가졌다.

신원규 목사 사회로 열린 임직예배는 추영욱 목사가 대표기도했으며 여성중앙단이 특송했다.

이어 이흥권 목사(호산나교회 담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자(출32:25-2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시작된 임직식

은 담임목사 기도, 서약, 안수기도, 약수례로 이어졌다.

이날 추영욱 목사가 장로에게 전지승 목사가 교우들에게, 그리고 유이상 목사가 장로 교우들에게 권면했다.

그리고 피터 짐 목사와 전모세 목사가 축사했으며 안우성 장로에게 임직패를 증명했다. 이날 예배는 신원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좋은마음교회)



한인가정상담소는 오픈뱅크 직원들과 함께 위탁아동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픈뱅크 직원들과...성탄파티 때 전달

한인가정상담소, 위탁아동 크리스마스선물 포장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염)는 지난 11월 17일 오픈뱅크 직원들과 위탁아동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오픈뱅크 직원들과 포장한 성탄 선물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캐서린 염 소장은 “오픈뱅크는 저희 한인가정상담소가 2014년 처음 시작한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고 계시며 후원금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때 직원들과 임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픈뱅크 크리스틴 오 전무(CFO)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이 한인가정상담소를 방문해 위탁 아이들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계속 후원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머무는교회 임직식에서 임직받은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어려운 때 흔들림 없이 이어오게 하셨다”

LA머무는교회 설립 2주년 추수감사 및 임직예배

LA머무는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설립 2주년 추수감사 및 임직예배가 21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찬양팀 찬양인도와 김문수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심태섭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영렬 목사(가주은혜교회, 전예장합동해의총회회장)가 ‘섬기는 자 집사, 권사(고전12: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영렬 목사는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교회에서 복 받은 자다. 권사 장로 목사는 명예가 아니다. 섬기는 자”라며 “하나님을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모든 크리스천은 주님을 섬기는 자다. 섬기는 의식이 없으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오늘 임직 받은 자는 충성되이 여건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일원이다. 임직 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교회를 섬기는 자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자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안수집사 임직식은 임직자 서약, 안수기도, 약수례, 공포로 이어졌으며 권사 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는 임직자 서약, 기도, 공포로 진행됐다.

명종남 목사(파사데나 한길교회)가 권면 및 축사했으며 기념품 증정, 여성중앙단의 축가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김영렬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김문수 목사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지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름처럼 잘 머물게 하셨다. 추수감사절 감사조건이 많다. 임직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에 임직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려운 때 흔들림 없이 이어오게 하셨다. 교회일꾼 세우는 열매를 드리는 것 감사의 조건이다. 모두가 기도하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날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 김홍진 △명예권사: 김도선 △권사: 박향미, 이해경, 서현중, 최미영.

(박준호 기자)

‘청교도 정신과 영성 리더십’ 포럼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등주최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등이 주최한 ‘청교도 정신과 영성 리더십 포럼’이 지난 11월 13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에 있는 말씀새로운교회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최화량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실비지평장교회의 김상도 목사가 ‘선한 사역’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임화자 전도사의 헌금 찬양과 최훈일 목사가 헌금 기도가 있었다.

이어 열린 포럼에서 강사 주준희 박사(뉴욕주립대 국제정치학박사)는 기독교 역사적 흐름을 설명하면서 “청교도들이

1621년 미국에 도착해 추수감사절로 신앙제일을 표현했고 그 정신으로 미국 리더십을 세워갔다”고 말하고 신앙 우선주의 개혁정신과 리더십이 오늘날 미국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교도영성과 미국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희창 박사는 폴리머스에 세워진 선조 기념공원 동상에 새겨진 5개 단어를 설명하면서 청교도의 영성이 이 단어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울광장, 성탄의 빛 비추다...

20주년 맞아 대한제국 시절 성탄트리 형상화

‘2021 대한민국 성탄축제’가 27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선 서울시 후원, CTS 주관으로 한국교회 연합체 세운 2021성탄트리에 불이 켜졌다.

올해는 서울광장에 성탄트리를 세우기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교회연합이 2002년 성탄트리를 세운 뒤 여의도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임마누엘교회 새에덴교회와 명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정) 대신 등이 함께 했다.

2021성탄트리는 높이 16m, 밑지름 9m로 제작됐다.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제국 시절 최초의 성탄트리를 형상화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온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성탄트리를 세우고 사탕 봉지를 달아 온정을 나눴다. 이번 트리엔 사탕 봉지 대신 한국 전통 문양의 장식을 매달았다.

또 대한민국 구상나무 형태

로 2021성탄트리를 디자인했다. 구상나무는 1907년 제주도에서 사역 중인 프랑스 타계 신부와 식물학자인 포리 신부를 통해 전 세계에 처음 소개됐다. 이후 개량종으로 개발돼 성탄트리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무가 됐다. 재질이 뛰어나 가구 제작과 건축에 사용되는 고급 조경수로도 사용되고 있다.

성탄축제엔 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전했고 CTS 공동대표이사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예정 통합 류영모 총회장 등은 교계 대표로 참석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크리스토퍼 벨 코스 대사대리,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중무관 등도 자리했다.

점등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전사, 빛의 전사가 되게 해 달라”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점등식엔 정관계 인사와 함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대표들이 참여했다.

전남 나주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는 정종섭 사장은 소상공인을 대표해 무대에 올라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면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 소속인 방형정 간호사도 “예수님은 빛이 뛰어나 가구 제작과 건축에 사용되는 고급 조경수로도 사용되고 있다.”

성탄트리엔 카운트다운을 외친 대표단이 스위치를 누르면 서 불이 켜졌다. 내년 1월 3일까지 빛을 밝힌다.

점등식 이후 2부 음악회에서 는 가수 알리, 성악가 소과와 프라다 신델라, CTS K-가스펠 출연팀 등이 120분간 시민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공연을 펼쳤다.

다음 달 17-26일까지 서울 중구 정동길에선 ‘2021 대한민국 성탄축제 in 정동’도 열린다.

“한국교 · 한교연 · 한기총 통합해야”

국회조찬기도회 등 5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열고 촉구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장로) (새국가조찬기도회(회장 이봉관 장로) 세계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삼복 목사·전 용태 장로) 한일기독교의원연맹(공동대표 황우여 장로)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공동대표 김희선 장로)가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포레스트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 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통합을 촉구했다.

한국교회교회평신도5단체협의회로 모인 이들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 복음적 평화통일, 한국교회의 하나 된 대정부·대사회 목소리와 행동, 건강

한 대한민국 건설,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세 연합기관은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 기관을 향해 “기관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먼저 통합을 이룬 다음에 한국교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며 “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교회 기관·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서선교 · 문맹 퇴치에 헌신 ‘130년 열매’

현존 최고 출판사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기념예배 드려

문서선교를 위해 한국교회 연합으로 달려온 130여년이였다. 한글 발간 원칙과 찬송가 보급을 통해 특히 여성과 아동의 문맹 퇴치에 앞장섰다. 일반 출판사를 통틀어 현존 최고(最古)의 출판사인 대한기독교서회(서회·사장 서진한 목사)가 창립 ‘130+1주년’ 기념예배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에서 드렸다.

서회는 1890년 존 W 헤른, 헨리 G 아켈러, 호러스 G 언더우드 등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문서선교 연합기관으로 서울 정동에서 첫발을 내딛는

다. 서회는 설립 당시부터 한글 발간 원칙을 선언해 130여년간 1만여종의 책을 펴내며 한글을 통한 기독교 신앙과 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서진한 서회 사장은 “교계 안에서 서회는 한국교회의 모판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신)의 전신인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서회의 터전 위에 세워졌고, 기독교방송의 설립도 당시 서울 종로구 서회의 건물 한 층을 무상 임대하면서 가능했으며, 서회 발간 ‘기독교사상’을 통해 김관석 박형규 목사를 비롯해 유동식 한

완상 교수 등이 거쳐 갔음을 언급했다.

서 사장은 그러나 빛나는 주연보다 이름 없는 조연들에 더 주목했다. 그는 “선교사 옆에서 우리말을 다듬는 데 정성을 쏟은 한국인 조사들, 전국으로 성경 찬송과 함께 책을 팔던 매서인교 권서인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서회의 오늘도 없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서회는 한국 근현대사 여성사 문화사와 맥을 같이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발전과 은혜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를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정총에는 예정합동 통합백서 합선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25개 교단, 4만2554개 장로교회, 795만8500여명의 성도가 소속돼 있다. 1981년 출범했으며, 박치순 이종윤 양병희 윤희구 김수을 목사 등이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차금법...”

국회서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 법만능주의 우려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 ‘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의 입법 필요성과 위법성을 논하는 찬반 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완주)가 주최했다.

박완주 의원은 “사회적으로도 평등법 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지금, 이제는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야 필요가 있다”며 “여당 정책위의 의정으로서 의견을 표명해 쟁점 우려와 찬성의 목소리 모두 포용하는 실질적 평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

교계 연합기관 연내통합 사실상 무산

통합조건 싸고 시각차 못 좁혀...WCC가입 · 이단시비 논란

기독교계 3개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국교·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그동안 논의해 온 통합이 내년 과제로 넘어갔다.

각 기관이 내세운 통합의 요구 조건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선 통합이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교총 소강석 대표회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오늘 한국교총 상임회장 회의와 임원회의를 마쳤다. 어려운 문제들을 숙고하고 대화해 합의된 안을 통과시켰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한기총, 한교연과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교총 상임회장 회의와 임원 회의에서 통합 추진은 다음 회기에도 꼭 하기로 결의했다”며 “미래발전위원회 대신 통합추

진위원회(통추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교총은 통합 추진을 담당했던 기관통합준비위원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도 진척을 보이지 않자 활동을 종료하고 해당 안건을 미래발전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한교연 관계자도 최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통합은 현재로선 어려울 것 같다. 일부 회원 교단이 반대하는 등 의견 일치가 안 돼 추진할 여건이 안 된다고 본다”며 “다음 달 7일로 총회가 예정돼 있지만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 아닌가 싶다. 내부에서도 거의 안 하는 분위기가 짙다”고 말했다.

한기총도 지난 11일 임원회에서 통합의 선결 조건으로 한국교총이 내세운 이단 시비가 있는 7개 회원 교단의 행정 보류 및 이단대책위원회 재조사 건에 대해 3개 교단만 행정보류를 결정하는 등 반쪽만 수용한 데다 오히려 한국교총 내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교단을 문제 삼으면서 통합 합의가 쉽지 않았다.

“사학법” 내년 1월 헌법소원 낸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 임원 초청 콘퍼런스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현안 대응에 나선다.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일부 사학의 비리로 동반 추락한 사학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윤리강령도 마련한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22, 2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에서 전국 기독교·종교·대학의 사학 법인 이사장과 임원을 초청해 ‘기독교 사학, 사명으로 새물결’을 주제로 사학미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재훈 목사는 “지난 5월 사학미션이 출범한 뒤 기독교 사학 임원들이 모인 첫 자리다. 기독교 사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건학이념 구현과 존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엔 50여개 기독교 사학, 100여명이 참석했다. 연세대 겸임교수인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와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이경미 변

호사가 사학법 개정안의 헌법소원 제기 근거와 과정을 각각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사학 경영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위, 법사위는 한밤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직원만 처벌하면 되는데 회사는 물론 동종 업계 회사까지 정부가 대신 직원을 뽑겠다는 게 사학법 개정안”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문제 조항을 따졌다.

첫순에 꼽은 건 초·중·고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이 강제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자율성의 침해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시도교육감이 교사를 뽑으면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변호사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초갈등사회 화해시키는 길잡이 될 것”

한국교총, 여의도서 ‘연합과 비전’ 대회

한국교회총연합(한국교·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2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2021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대회’를 개최하고 교계와 정계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예배 회복, 새로운 부흥과 연합을 다짐

했다.

토론회에서는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을 중심으로 법 제정 의의와 세부 내용을 훑었다. 이어 차금법 입법 찬반 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위법성을 각각 짚었다.

입법 찬성 측은 차금법 제정이 14년 넘게 미뤄지며 외면받은 점을 비판했다. 또 누구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된 평등사회를 위해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 총회장의 사화로 고명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이 대표기도를 했고 장종현 대표회장이 설교했다. 장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라며 “희생과 섬김으로 각처에 예수의 향기를 퍼뜨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도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2부에서는 이철 소강석 대표회장이 대회사와 환영사를 각각 맡았다. 송태섭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도 김현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은 연합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김태영(한국교총 명예회장) 목사가 축사했다.

‘2021 한국교회 공로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전용태 변호사,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김진표 박찬대 의원, 서현재 중앙대 명예교수, 이해훈 전 의원이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교총은 당시 회의에서 한국교회 회원 교단 중 교회일치운동을 펼치는 WCC에 가입된 교단은 기관 통합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총에서 WCC에 가입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다.

이를 두고 한국교총의 한 임원은 “한국교총을 만든 고경직 목사조차도 WCC에 참여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게다가 예상통합이 한국교총 내에서도 교단 규모가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인 만큼 한국교총의 요구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을 요구한 한 교계 지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각 기관에서 통합의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공격 교회 마인드가 있다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통합에 준비가 안 돼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한국교총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회원 교단의 뜻을 모아 통추위를 조직해 통추위가 전권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는 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징계권 간섭도 위헌성 있는 조항으로 꼽았다. 자문기구인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든다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면 법령 시행 이전에도 헌법소원 할 수 있다. 내년 1월 중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창호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한다. 법인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 공포됐다. 3개월에서 6개월 뒤 시행된다. 사학미션은 기독교 사학이 신뢰도 회복에 나서도록 자정위원회(가칭)도 세운다. 대법관 출신 김신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자정위는 기독교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한편 기독교 사학의 분쟁과 회계부정 등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김 변호사는 “기독교 사학의 위기는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위기다. 위원회는 기독교 사학이 세상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교 펴기

파라과이

평강을 빙니다. 벌써 올해도 두 달도 못 남았습니다.

1. 감사한 일

한국방문은 코로나로 엄청 단속이 심해 교회방문이나 친지방문도 어려웠습니다. 선교보고를 교회에서도 모임이 없고 초청도 없었습니다.

전도지는 파라과이서 결국 만들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다. 이번에 한국에서 글 없는 전도지 3000장을 구입해 가지고와

서 신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지난 9월에 할렐루야교회 26주년 생일잔치를 하였습니다.

한국서 바리바리 준비해온 마스크와 각종 작으만한 물건과 빵과 통닭도 각 가정애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고 말세에 우리 교회는 "십자가 자랑하는 교회되자"고 강론하고 십자가로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설교하였습니다.

3. 지난주에는 여섯 번째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어제 주일에는 쌀 40포 마스크 300장 사랑을 나누어 주고

왔어요.

너무 많은 인원이 예배당에 가득 차니 너무 더워서 선풍기 5대가 감당이 안 되어 에어컨을 한대 달았더니 용량이 적어서 커버를 못하여 예배 중에 계속 따를 댕는다고 바쁘습다.

보통 100명-150명 어린이로 많은 생명잔치가 좋기는 한데 매주 간식비도 장난이 아닙니다. 새 개척교회라 리더가 없어서 교육면에는 아직 해매고 있습니다.

4. 2022년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

예배당서는 자리가 비좁아서 운동장을 포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시간에 서있는 아이들이 제법 많아서 의자도

한 오십 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5. 기독교 예술학교와 신학대학은 2학기 종강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생이 50%정도 줄고 등록금도 납부 안해서 2022년 개학을 해야 할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6. 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1)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공부를 잘 인내하여 아름답게 지내왔는데 2022년 새해를 걱정없이 맞도록

2)어려운 중에서도 새로운 일곱 번째 개척지가 정해져서 준비가 잘되어 씨를 심고 움이 돋고 꽃이 피도록



3)막내 사위 사역지 안착과 큰사위 장주동 목사님과 큰 딸 정현이가 파이디온 선교회 본부장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손주들이 고3 고2 초2인데 파송교회 언어 준비 등 장애물이 많은데 잘 견뎌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4)끊임없이 전도와 식품제공과 심방전도를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나라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림니다.

amorr1004@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5강 / 변성과 학대, 탄식 그리고 모세(출1장)(상)

애굽에 들어간 이유: 구원의 그림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왕'과 '백성' 그리고 그 왕과 백성이 부끄러움 없이 거하는 '영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땅은 '가나안'으로 대변되지만 영역은 단지 보이는 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부끄러움이 없던 관계였을 때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아담과 하와와 범 죄이후 더 이상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범 죄하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라 주신 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반복해서 그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이 세상, '풍요의 땅'이지만 죄가 가득한 '죄의 도성'인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둔 마음을 벗기시고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 두고 살 진정한 나라가 아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의 나라 그 분향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을 다 가진 자보다 더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풍요의 땅으로부터 부르시는 것이고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풍요의 땅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에서 기근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잠시 이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같이

시겠다는 것(눅6:38)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풍성함이 있을 것에 대한 맛보기로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창30:43)는 말씀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도 지키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세상의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셉을

있어 원하기만 하면 물질을 내서 물을 얻을 수 있는(신11:10)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여호와와 동산 같은 곳이었고(창13:10) 풍요한 만큼이나 우상도 많았고 죄도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죄인 인간은 그 풍요 속에서 '자연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

합니다(출1:7). 심지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고 합니다(출1:12/행7:17).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 그리고 강함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심'은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지만 세상에서의 풍요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는 죄인들은 그 번성함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창15:13,14) 야곱을 통해(창47:29-31, 48:21) 그리고 요셉을 통해(창50:24,25) 반복된 출애굽의 유언은 부모에서 자식들로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었어야만 했지만 애굽의 풍요는 역시나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대대로 전해져야 할 믿음의 유산은 애굽의 풍요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분명 고통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성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세상의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픔조이기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학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노동이 시작되었고 성경은 그들이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출1:12). 심지어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아이 중에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고(출1:15,16) 그의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 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출1:22).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야곱의 일행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간이 되었지만(창15:13/행7:6)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출애굽에 대한 유언이 '전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애굽의 기근을 구하고 각국의 기근을 구한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출1:8).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독들이 세워지고 무거운 짐이 지워지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바로 그 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풍요를 즐기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케 하셨습니다(출1:12).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아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했지만 출애굽에 대한 유언이 '전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출1:15-21).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고난을 불러오겠고 피할 길이 없겠지만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라면 복을 불러올 것이고 피할 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고전10:13).

hfamilyfa@gmail.com

요셉 역시 그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의 나그네였음을 증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낸 하나님의 열심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소통없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얻은 '은과 금'(창13:2) 그리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창12:16)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놓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시라 말씀하시니(창26:1-5) 순종하여(창26:6)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창26:12) 그와같이 앞으로 계속 흥들어 넘치도록 부여주

위해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잠시 맡겨두신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신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신 것은 애굽의 풍요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 애굽과 같은 세상의 풍요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애굽(이집트)은 나일강이

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1:20-23).

번성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상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GRACE THEOLOGICAL SEMINARY

-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 지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교교육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우리 안의 하나님나라(눅17: 20-21)찬213장

외식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하나님나라에 관한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그 나라는 화려하게 임하지 않습니다(20). 세상 영광을 구하는 나라 곧, 이스라엘민족의 제국주의 영광을 꿈꾸는 유대주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오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권위를 행사하십니다. 둘째, 시공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20). 모든 시공을 지

배하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세상 영광으로 채워진 메시아왕국을 기대하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가까이서도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그 나라는 교회 안에 임합니다(21).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에 임하여 그 완성을 향해 능력있게 나아갑니다. 그 나라(요1:14)는 그의 재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마6:33).

화 인자의 때에 주의할 일(눅17:22-25)찬161장

여기 인자의 때란 하나님나라가 완성된 종말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원시대이며 종말시대인 그 때, 우리가 가질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들의 현혹(23)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왕의 재림을 둘러싸고 온갖 유희 때문에 자기탐욕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거짓교훈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24). 번개의 비처럼 쉼 없이 임하시기 때문에 현실

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미래의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십자가 중심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25).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그 날에 힘쓸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 믿을 때 시작한 그 마음은 순례자의 길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주님을 맞을 직전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입니다.

수 노아와 같은 때(눅17:26-27)찬496장

주의 재림직중 중 하나인 노아의 때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 극도의 육체주의에 떨어집니다. 인간의 기본육구인 먹고 마시는 일은 자연스러우나 그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뒷전에 두고 자기영광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고전10:31). 혈육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렐7:5). 둘째, 극도의 쾌락주의에 떨어집니다. 하

나님 중심한 귀한 결혼을 현실에 머무는 쾌락주의의 도구로 삼습니다. 일락과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바른 성장을 막습니다(눅8:14). 셋째, 영적 둔감에 떨어집니다. 현실지향적 삶은 영적 긴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증거조차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현실의 총성보다 헛된 열망으로 속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심판의 증거들로 꽉 찬 세상에 이것들을 경계합니다.

목 롯의 때와 같은 때(눅17:28-30)찬167장

롯의 때 역시 심판의 증거가 일어남을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첫째, 인간의 기본육구인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게 됩니다(28). 재림직전 음식문화는 극도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육체적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무분별한 음식문화는 저주받은 증거입니다(잡23:1-2). 둘째, 물질주의시대가 돼버립니다(28).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해 거리가 활활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물질과 변역의 위상

섬기는 인간의 탐욕의 표현입니다. 세속문화의 발달은 하나님을 떠난 증거입니다. 셋째, 그러나 의인은 기억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택함 받은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29).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극도의 타락의 문화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습니다.

금 롯의 처의 실패(눅17:31-32)찬337장

그러나 롯의 처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겨 징계를 받았습니다. 작은 경고를 무시함은 세속에 빠진 상태를 증명합니다. 이런 애매한 유희가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바로 살까요? 첫째,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속문화가 지배해도 신실되어 말씀중심한 삶을 살면 길이 열립니다. 그는 감당한 힘과 길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고전10:13). 둘째, 롯의 구원을 통해 지혜를 얻

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내 심판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에게 그의 말이 농담처럼 여겨질 정도로 영적권위를 잃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셋째,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33).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여 소금기둥이 돼버린 그녀를 통해 우리는 그 유희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까지 착념하는 자가 복됩니다.

토 새 생명을 누릴 자(눅17:33)찬197장

종말시대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목적을 가집니까? 첫째, 자기목숨 위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목숨이란 자아 곧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아부인은 자기목숨 위주로 살지 말고 주님과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롬6:3:6). 둘째, 자기목숨을 잃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임으로 넘기라는 뜻입니다. 갈 2:20 바울의 고백에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

힌 사실을 주장하고 자기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롬6:13). 셋째, 새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순간마다 신자 속에 일어나는 선택, 자아나 주님이나를 주목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릴 때(롬12:2) 주님은 새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심어주시는 그 부활생명이 지배하는 삶이 우리시대의 좁은 길 곧 생명의 길입니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22)

믿음의 연결 세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과업

이제 다니엘 후반부(단10-12장)를 보자. 다니엘 10-12장은 실은 하나로 되어있는데 10장은 서론, 11장은 미래에 이어질 이야기의 설명, 그리고 12장은 결론의 부분이다. 결국 이 세 장은 다니엘이 산 시기부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고레스왕 3년 즉 BC 536년에 계시되어진 내용이다. 이즈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 후손들에게 기록교 진리가 충만한 세상을 물려줌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부모세대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다니엘처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다.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페르시아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BC 538년에 멸망시킨 후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령을 내리게 되고 다음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톱바벨의 영도하에 4만987명이 BC 537년 1월에 출발하여 6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장막설 예배를 드리게 된다(에스라2:64-65). 이때 다니엘은 함께 오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80대 중반인 그가 6개월 대장정을 하는데 체력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고레스 원년까지 공직에 있어서(단1:21) 귀국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3주간 금식기도를 하게 된다(단10:3). 왜 그랬을까?

오늘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이다. 악이 너무 창궐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세 가지 기관(가정, 학교, 교회)이 모두 기능하고 있지 않음을 각성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교육, 공교육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학교교육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므로 살려야 한다. 교회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기록교 교육을 잘 감당하므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한다.

아마도 70년간 바벨론 생활에 풍족을 느낀 유대사람들의 영적 빈곤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당시 바벨론에 100만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주하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은 겨우 5만명 수준이었다. 그는 또 성전건축이 방해공작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았고 이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을 것이다.

특히 교회학교를 살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목회자와 학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교회학교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기독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 교육은 다음세대의 영적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중시해야 할 기성세대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는 큰 환상을 보았는데(단10:1), 다니엘은 그것이 종말에 대한 것, 유대민족의 미래에 대한 것임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그는 그의 미를 알려달라고 금식기도를 했던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응답해주시지만 도중에 악한 영이 방해하여 기도응답에 3주가 걸리게 된다. 결국 큰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과 악인에 대한 멸망,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과 돌보심이 주된 내용이다.

성경은 기존 세대가 후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편78:4을 읽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그러기 위해 부모가 다니엘처럼 믿음의 연결세대가 되어야 한다.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의 씨를 뿌린 사람이었다.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미래 세대를 연결시키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업이 단10:14절에 기록되어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단10:14).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과업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무슨 말인가?

다니엘은 꿈을 꾸었고 비전과 환상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선견을 가졌다. 다니엘은 2장에 느브갓네살왕의 꿈을 통하여 장차 오게 될 왕국을 알았다. 순금(바벨론), 놋(메대와 페르시아), 쇠(그리스), 그리고 진흙(로마)의 나라들이 차례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진흙의 나라가 끝나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메시아)가 오게 됨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85세 때 환상을 보고(단9:25-26) 이를 기록하였고, 다가올 메시아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미래를 보고 장차 다가올 세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바로 이는 오늘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신 과업이기도 하다. 그렇다. 자녀교육은 기성세대가 할 일의 첫 번째 과제이다. 기성세대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님을 깨닫고 장차 다가올 종말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악인의 멸망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다니엘이 죽은 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에 다니엘의 예언을 계속 전수하였고, 마침내 로마제국 시절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탄생하게 되었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인/터/뷰

SBM(기독교생활개혁운동) 대표 황의영 목사

성역 60주년...한국 등 7개국 순회하며 SBM 역사적 과업 수행할 터

올해로 황의영 목사(SBM, 기독교생활개혁운동 대표)가 성역 60주년을 맞이했다. 1961년부터 사역자의 삶을 시작한 황의영牧사는 미주평안교회(LA소재)를 개척하기도 했다. 이어 기독교인 생활개혁 운동에 앞장서서 헌신해온 황 목사는

성역 60주년을 감사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본지에서는 황의영 목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사역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 성역 60주년을 맞게 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셨는지요?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61년 7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교회를 개척하여 단독으로 목회를 시작하신지 60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제1호 교회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 김치선 목사님은 28,000여 동리에 가서 우물을 파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300만 명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며 매일 정오만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정신에 크게 감동을 받고 북가좌동 수재민촌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60년간을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으셨는지요? 사역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 후 후임자에게 맡기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한국교회를 변화시켜보겠다는 각오로 1972년 3월 LA로 이민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성서울교회(고 김세창 목사 담임)의 협동목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1975년 1월 5일 미주평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273 Lyman Pl.에 있는 교회건물을 매입했고 다시 866 S. Westmoreland Ave의 큰 건물을 구입하는 등 다음세대를 위해 교회의 기초를 닦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1987년에는 브라질 상파울로에 평안교회를 설립했

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필라델피아 중앙교회 3대 목사로 목회했습니다. 이어서 1992년엔 캐나다 몬트리올에 한인사랑교회를 설립해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하며 가르친 것은 건문을 넓히고 세계교회의 트렌드를 조망하는 눈을 뜨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마지막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강대상 앞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험을 쌓은 다음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교회와 신학교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대한신학대학원장으로 초빙을 받아 귀국,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1996년 5월

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M.A)했습니다. 그리고



황의영 목사

장서리로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프놈

1989년 50세를 기해 전반기 사역을 점검하고 후반기의 사역을 구상하기 위한 작전타임으로 9월 1일부터 LA Prayer Mountain에서 33일간 금식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성경을 통독하던 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 하리라"(사46:10,11)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 새로운 사역의 기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 "은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인생활개혁운동 SBM: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한국과 미국, 브라질에 교회개척하며 목회에 일념, 왕성한 저작활동 겸해

SBM한국본부와 더불어 서울 동양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03년 5월엔 청주에 동양장로교회를 개척했고 2007년 11월에는 씨엔립에 캄보디아 동양장로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또 교수하신 학교는 어디신지요?

1963년 대한신학교를 졸업(Th.B. equi. 제15회)했습니다. 이어 1966년 건국대학교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B.A.)하고 1969년 연세대학교 연합

1975년 유나온대학교대학원에서 리더십을 전공하고 철학박사(Ph.D.)학위를 취득했고, 1982년 홀러신학교에서 목회상담학과 교회성장학을 전공한 후 목회학박사(D.Min.)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수는 1968년부터 대한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강의하기 시작해 안양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Dean으로, 기독교신학교(현 백석대학교), LA Bible College(현 서부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귀국한 후에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교무처장, 총

펜 소재 International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의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두란노신학교(학장 황연규 박사)의 객원교수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필리핀 소재 United Seminary of Asia의 대학원장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역 60주년을 지내오시면서 기억할만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정한 경영”(plan, purpose, strategy)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 SBM(기독교생활개혁운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SBM은 S-Serving God First, B-Biblically Applied Life 그리고 M-Model for Enculturation의 첫 자를 딛고 유명사이고 3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씀의 신앙화(From Scripture to Faith) 둘째, 신앙의 생활화(From Faith to Christian Innovated Life) 셋

째, 생활의 문화화(From Life to Christian Cultural Impact). 이를 진행해나가고 뒷받침할 교재를 기초부터 창의적인 교재를 단원별로 집필해왔습니다. 특별히 "에코웨이 학습원리"(Principle of Echo-way Learning)는 정성을 다해 개발한 학습이론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서로 SBM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SBM의 핵심적인 내용과 교재목록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주평안교회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와 자녀들이 희생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주최하는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의 주강사의 한 사람으로 8회에 걸쳐 계속 참여하며 고 장영춘 목사님과 깊은 교분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모였을 때는 저희가 호스트가 돼 대회를 치른 것이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역과 비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역 60주년을 기해 원로목사로 추대 받고 현재 미국에 있는 SBM 국제본부와 SBM 한국본부의 총재로 그리고 재단법인 SBM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사역중입니다. Covid-19 Pandemic이 가라앉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등 7개국을 선정해 순회하면서 강의를 계속하며 SBM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남은 생애를 바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SBM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서로는 "목회상담원리"(1970), "사모학"(1976), "교회의 직임과 리더십"(1993), "목회진단학"(2002), "크리스천의 품성교육", "설교준비의 왕도", "에코웨이 학습원리"를 비롯해 60여권의 저서와 성역 60주년기념 논문이 있다.

▲연락처: sbmusa@hanmail.net (이성자 기자)

다니엘영성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그들은 별을 따라 800마일을

여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의 고백을 통해 메시아 탄생을 세상에 알렸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온 맘을 다해 경배함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이 있었기에 성취가 가능했다.

이방 땅에서 쓸쓸히 죽어간 다니엘은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의 성취를 연결시켜주는 믿음의 매개자로서 귀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렇다. 1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러기에 믿음의 바톤을 힘차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바

로 다니엘처럼! hlee0414@gmail.com

AG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 CHURCH. 주방 조리사를 구합니다. 감사한인교회에서 주일 식사를 담당할 주방 관련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문의: 714-521-0991 admin@thanksgivingchurch.com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미종진 목사 초청 12월 부흥성회. 단국대학교 총동창회 자문위원,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대표교문, 서울대학교(ABK)제12기 원우회교문.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AMOR FESTIVAL

괴테말라 원주민 어린이 영재학교 기금모금

아모르 음악축제



12월 6일 월요일 오후 6시

Oxford Palace Hotel
746 S Oxford Ave, LA, CA 90006



글로리아 안(소프라노)

- Formal adjunct faculty at Vanguard University School for Professional Studies.
- The music director of Vocilesti Children's and Adult Choir in Pasadena.
- The Executive Director of Vocilesti Vocal Ensemble.
- Music director of Young Angles Children's Choir in Los Angeles and Bethel Children's Choir in New York.
- Conductor of WUMC Choir, LAFPC Choir, and VNUMC Choir.



소프라노 김종숙

- 2000 이화여대 성악과 졸업/사사 이규도 교수
- 2002-2004 주) 나리방송 아나운서
- 2006-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가곡 오라토리오 전문사(대학원) 과정 /사사 김정희 교수
- 2009-2011 Yale University Camerata Soloist
- 2018 현) 파사데나 장로교회 Trinity Choir Music Director



소프라노 이명주

- 선화예술 중, 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Frankfurt 국립음대 Operngesang 졸업 (Diploma)
- 독일 Frankfurt 국립음대 Lied und Oratorio
-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KE)
-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예술대학교 (PPIA) 성악과 교수 역임
- 선화예술 중, 고등학교 강사 역임
- 백석 예술대학교 강사 역임



테너 오위영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Azusa Pacific University 졸업, World Mission University 졸업
- Opera "윤동주" 에서 주연 윤동주 역(Los Angeles Disney Concert Hall 2015)
- Opera "Samson and Delilla"에서 주연 Samson 역(San Gabriel Mission Play House 2016)
- 작곡가 임금수 초청 제68회 평화음악회 (한국 예술의 전당 2016 롯데 콘서트홀 2019)
- Opera "Exodus"에서 주연 Moses 역(Los Angeles Disney Concert Hall 2016)
- 베토벤 No.9 테너 솔로(Los Angeles Disney Concert Hall 2017, 2019)
- 타이완 정부 초청 음악회(타이중 오페라 하우스 2020)
- 셋별신교합창단, 엔젤레스코랄, 남가주 외대교향 지휘자로, LAKMA, Vocilesti, LACS 솔리스트



테너 최원현

- BA in music, voice, Kyung-hee Univ.
- Tenor, Opera Singer, Musical Actor
- SEASUN Theatre Artist Group General Director
- LA Pops Chorale Conductor
- Young Angels Chior Vocal coach
- LAFGC Gideon Choir Conductor
- Kyung-hee Chorale Conductor
- LA CHRISTIAN SINGERS Tenor
- Performance at Hollywood Bowl, Disney Concert Hall, Zipper Hall, Wilshire EBELL Theatre etc.



바리톤 채홍석

- 인디애나 주립 대학 연주자과정 수료 (Performance Diploma)
- 오레곤 주립대학교 Shepherd University 성악과 학사졸업
- UCLA 성악과 석사졸업 (Master of Music in Vocal Performance)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박사졸업 (Doctor of Musical Arts)
- 헨델의 메시아 (LA Chamber Choir), 천지창조 (San Francisco Catholic Choir), 지휘자 Helmut Rilling과 바흐의 b minor Mass (Oregon Chamber Choir), 베토벤 Symphony No.9 (UCLA Philharmonic) 등등 다수의 오라토리오와 칸타타 Soloist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리골렛토', '사랑의 묘약', '촌희', '팔스타프', 'Flight', 'Giasone(West Coast Premiere) 등 다수 출연
- 2005 Bella Voce National Competition Finalist
- 현 선한 청지기 교회 Gloria Choir 지휘자



피아니스트 김경미

- 덕원예술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전공석사졸업(BM)
- WMU Collaborative Piano Major(MA) 수료시립합창단, 국제 오페라단 반주역임
- 연세대학교 오케스트라축제 예술의전당 협연, 국민일보 신인음악회 출연
- 현) 클레어몬트 스크립스 대학교, 포모나 대학교 음악대학 반주 교수 및 코치
- 현) 아주대학교 음악대학 스테프 반주자 및 코칭멘탈리
- 현) SEASUN Theater Artist Group 음악코치(Musical "Dosan")
- 현) SYMF, SATOR and ASTA 등 콩쿨 전문 반주자로 활동
- 현) 남가주 장로성가단, 엘에이 남성 성교합창단, LACS(LA 크리스천싱어즈) 반주자
- 현) 랜섬 국제음악페스티벌 & 콩쿨 오피셜반주자

• 주최 : SERVE AND GIVE MISSION • 티켓(디너 포함 \$50) 문의 : 818.331.5478